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협상모델 연구
- 동적·정적 여가활동 비교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고 보 숙

2010년 8월

豫備老年層의 餘暇動機와 餘暇制約 協商모델 研究

- 動的 · 靜的 餘暇活動 比較 -

指導教授 崔 炳 吉

高 輔 淑

이 論文을 觀光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8月

高輔淑의 觀光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8月

Testing Leisure Motivation and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Model for Pre-elder people
- Comparison between Physical and non-Physical Leisure Activities -

Bo-Sook Koh

(Supervised by professor Byoung-Kil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Tourism Science

AUGUST 2010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AUGUST 2010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방법 및 범위	6
II. 이론적 배경	8
1.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과 특성	8
1) 예비노년층의 개념	8
2) 예비노년층의 여가 개념과 유형	12
3)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특성 및 중요성	18
2.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	21
1)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 개념	21
2)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 유형 및 구성요인	23
3)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의 측정항목	26
3.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29
1)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개념	29
2)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유형 및 구성요인	30
3)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측정항목	38

4.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협상	40
1)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협상 개념	40
2)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협상 유형	41
3)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협상 측정항목	44
5. 선행연구의 검토	46
1)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와 참여 간의 관계	46
2)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 제약 및 참여 간의 관계	47
3) 여가동기, 제약, 협상, 참여 및 지속의도 간의 관계	50
III. 연구의 설계	60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60
1) 연구모형	60
2) 가설 설정	61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62
2. 연구의 조사 설계	64
1) 설문지 구성과 자료의 측정	64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65
VI. 분석 결과	67
1. 표본의 구성과 특성	67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67
2) 여가활동 유형별 표본의 특성	68

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69
1) 탐색적 요인분석(EFA)	71
2) 확인적 요인분석(CFA)	82
3. 연구가설 검증	87
1) 동적여가활동 참여 집단의 모형검증	87
2) 정적여가활동 참여 집단의 모형검증	90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93
1) 분석결과의 요약	93
2) 분석결과의 시사점	94
V. 결 론	99
1. 연구의 요약	99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02
참고문헌	104
설문지	113
ABSTRACT	117

표 차 례

<표 2-1> 중·노년층 연령대 구분 선행연구	10
<표 2-2> 예비노년층 연령대를 제시한 선행연구	11
<표 2-3> 여가활동 유형	17
<표 2-4> 50대와 60대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특성	19
<표 2-5> 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특성	20
<표 2-6> 추출된 동기의 측정항목	28
<표 2-7> 여가제약의 개념적 분류	31
<표 2-8> 여가제약의 경험적 분류	32
<표 2-9> 여가제약 유형에 관한 주요 연구	33
<표 2-10> 여가제약 연구의 흐름	35
<표 2-11> 여가제약 요인 추출	39
<표 2-12> 여가제약 협상 유형	43
<표 2-13> 여가제약 협상 요인 추출	45
<표 2-14> 여가제약 협상에서 동기의 역할	52
<표 3-1> 최종 설문지의 구성	64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67
<표 4-2> 여가활동 유형별 표본의 특성	69
<표 4-3>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동기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2
<표 4-4>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제약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3
<표 4-5>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4
<표 4-6>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참여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5
<표 4-7>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65세 이후 여가 지속의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6
<표 4-8>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동기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7
<표 4-9>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제약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8
<표 4-10>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9

<표 4-11>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참여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80
<표 4-12>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65세 이후 여가 지속의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81
<표 4-13> 동적여가활동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83
<표 4-15> 정적여가활동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85
<표 4-17>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모형 검증 결과	87
<표 4-18> 정적여가활동 참여집단의 모형 검증	90
<표 4-19> 여가제약 협상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분석	96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7
<그림 2-1> 동기·행동 심리과정	22
<그림 2-2> 동기의 유형	24
<그림 2-3>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여가제약	32
<그림 2-4> 여가제약의 단계적 모델	48
<그림 2-5> 여가제약 유형간의 상호작용	49
<그림 2-6> 여가제약 여가동기간의 균형제안	49
<그림 2-7> 여가제약과 동기, 참여 빈도의 관계성	51
<그림 2-8> 여가제약 협상의 독립모델	53
<그림 2-9> 여가제약 협상의 협상-완충모델	54
<그림 2-10> 여가제약 협상의 제약효과 완화모델	54
<그림 2-11> 여가제약 협상의 인식된 제약감소모델	55
<그림 2-12> 여가제약 협상의 동기와 여가 지속의도 매개역할 관계	56
<그림 2-13> Son et. al.(2008)의 여가동기, 제약, 협상 그리고 참여 간 구조모형	58
<그림 3-1> 연구모형	61
<그림 4-1> 동적여가활동 참여 집단의 모형검증	87
<그림 4-2> 정적여가활동 참여 집단의 모형검증	90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과거가 현실적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경제적 풍요와 시간적 여유로 인해 사람들은 여행을 가거나 스포츠나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과거보다는 매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여유는 사람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크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즉, 여가활동은 현대인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1위에 올라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8년 이후 14%이상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노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에 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비노년층은 시간적으로 노년기 직전의 시기로서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동시에 인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기이며, 노년의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많은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노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된 이유이기도 하다.

노년이 된 후의 여가는 이미 경험했던 여가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²⁾ 현재 노년층에 대한 여가연구가 실태 위주로만 연구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강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이미 과거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

1) 삼성경제연구소(2008).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p.1

2) 최호경(2000).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교만·이은석(2004). 노인의 과거 여가활동 경험이 현재 여가심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pp.325-338.

서 노년층에 관한 연구는 그들이 노년이 되기 훨씬 전부터 연구되어야 하며, 그 연구의 방향이나 결과가 계속 노년층까지 연계되어질 때 연구의 의미는 한층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예비노년층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로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는 여가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연구하고, 그 요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비노년층에 대한 여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여가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행동은 동기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여가동기는 여가행동의 참여방식을 설명해 주고 여가참여에 대한 결과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동론적 관점에서 여가연구는 여가동기에서 출발한다. 여가활동 유형이 매우 다양하듯 예비노년층들의 여가활동 참여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많아질수록 정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한다³⁾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과학·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적이고 경쾌한 동적여가활동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⁴⁾

여가활동은 자신의 부족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여가활동에는 제약요인이 따르게 마련이다. 즉, 동기는 여가활동의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지만 제약요인은 여가활동의 참여를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동기요인이 제약요인보다 강하게 나타나면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 두 요인 즉, 여가행동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키는 요인과 이를 억제하려는 요인은 내부적으로 서로 충돌을 보이게 되는데 인간은 이러한 충돌을 협상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 그리고 여가참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 간의 독립적 관계⁵⁾ 및 구조적관계에 대한 연구⁶⁾도 찾아볼

3) 신화경·이준민(2005). 예비노년층이 선호하는 노후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pp.15-23; 최성재·장인협(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p.13;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연구, 『한국노년학』, 29(3), pp.1107-1122.

4) 최병길·고보숙·서용건(2009). 예비노년층의 신체적 여가활동 만족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3(1), pp.337-355;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연구원(2008). 『2008 여가백서』, pp.92-94.

5) E.L. Jackson, D.W. Crawford, & G. Godbey(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tudies*,

수 있다. 동기, 참여 그리고 제약 협상 간의 모델은 독립모델(independence model), 제약-완충모델(negotiation-buffer model), 제약효과 완화모델(constraint-effects-mitigation model), 인지된 제약감소모델(perceived-constraint-reduction model)로 여러 가지가 있고,⁷⁾ 공원방문객을 대상으로 구조관계를 살펴본 Son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동기는 협상을 통해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제약은 협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참여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논문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서의 제약협상모델을 적용한 경우에서 동기와 제약 모두 협상을 통해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여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 여가동기는 강하지만 제약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 동기와 제약 모두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동기, 제약 그리고 제약 협상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특정 여가활동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여가 참여의 대상을 예비노년층으로 제한시켰고, 여가 활동의 유형을 스포츠와 같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참여하는 동적 여가활동과 가사나 취미활동과 같이 다소 정신적 만족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는 정적여가활동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 간 제약 협상간 모델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즉, 스포츠 참여와 같은 비교적 동기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동적여가활동에서는 여가제약 협상요인이 여가제약과 여가참여 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가사나 취미활동과 같은 비교적 동기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정적여가활동에서는 여가제약 협상은 매개 요인의 역할을 약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동적여가활동을 하는 집단과 정적여가활동을 하는 집단 간에는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

15, pp.1-11.; J. Hubbard & R. Mannell(2001). Testing Competing Model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gr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 23, pp.145-163.; K. Alexandris., V. Barkoukis, H. Tsozbazoudis, & G. Groulos(2003). A study of perceived constraints on a community based physical activity program for the elderly in Greece,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11, pp.305-318.

6) J.S. Son, A.J. Mowen, & D. Kerstetter(2008). Testing Alternativ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Model: An extension of Hubbard and Mannell's Study, *Leisure Science*, 30, pp.198-216.

7) J. Hubbard & R. Mannell(2001). *Ibid*.

8) 최성범(2009).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협상효능감,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협상 및 여가참여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4), pp.145-156.; 황선환·서희진(2009).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 및 진지한 여가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0(2), pp.298-307.; 최성훈(2010).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직장인들의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협상 전략분석, 『체육과학연구』, 21(1), pp.997-1010.

약 협상 그리고 여가참여 간의 구조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정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며, 이를 문제의 제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덧붙여 과거의 여가경험은 현재의 여가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이 노년층의 여가활동으로 지속가능성을 알아보고자 기존의 동기, 제약, 제약 협상 그리고 참여로 이루어진 모델에서 65세 이후 노년층이 된 후 여가참여에 대한 여가 지속의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모델을 확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연구가 특정 여가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을 동적 그리고 정적여가활동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을 연구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제약 협상모델에다 지속의도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과 노년층의 여가활동의 관계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앞으로 곧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최다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예비노년층의 여가현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노년이 되어 은퇴와 사회적 역할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이 여가시간으로 이용되어질 예비노년층들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노년기에 여가시간에 대한 대비는 준비된 노년을 맞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가활동 그 자체가 노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고 삶의 활력소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절에서 기술하였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동기, 제약, 협상 그리고 참여 및 지속의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동적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예비노년층을 ‘예비노년층’이라는 용어를 개념화하였고, 이에 적합한 여가동기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제약 및 제약 협상에 대한 개념 및 유

형을 정리하였다. 특히, 특정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노년층에 대한 연구로서 예비노년층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비노년층에 대한 용어가 아직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학문적 차원에서 함의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여가동기, 제약 그리고 참여간의 구조모형에 대해서는 아직 탐색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변수간의 구조모형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여가제약 협상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탐색적으로만 이루어졌던 예비노년층에 대한 여가연구에 대해 확인적 모형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예비노년층을 연구하는 것은 미래의 노년층을 구성하는 예비노년층이 노년에 가서 더 나은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포함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구되어지지 않은 분야로서 여가참여가 이루어지면 이들 예비노년층이 노년층이 된 이후까지 같은 여가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참여와 지속의도의 관계를 구조모형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여가동기, 제약, 협상 그리고 참여에서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제약과 여가참여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다. 여가활동 유형은 동적 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으로 분류 되었고, 두 유형에 따른 예비노년층들의 여가제약 협상 강도에 대한 구조적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섯째, 이론연구와 실증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의미와 실증적 시사점을 통해 예비노년층들의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소극적인 여가제약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여가제약 협상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선택한 여가가 노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학문적으로는 예비노년층의 개념 정립, 여가동기, 제약, 협상, 참여 그리고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정립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이후 고령사회가 되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속시키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세우는데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documentary study)와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y)가 병행되었다. 문헌연구에서는 관련 서적, 국내·외 논문, 기타 각종 간행물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비노년층의 개념, 여가 동기, 여가제약 그리고 여가제약 협상 전략 및 여가참여와 여가 지속의도에 대한 개념 정리와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그리고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및 연구동향, 구성변인들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다. 또한 여가참여와 여가 지속의도에 관한 이론 및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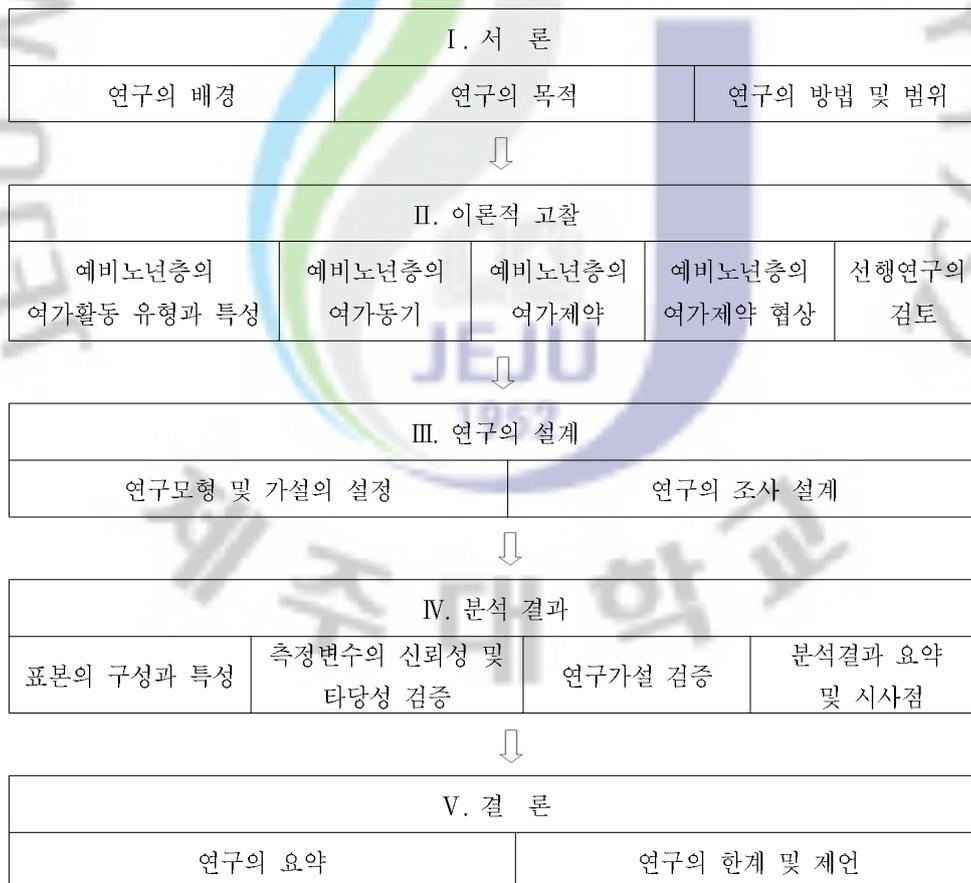
내용적으로는 여가제약 협상전략이 여가제약의 범위를 좁히고 여가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적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 사이에 여가제약 협상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여가참여는 지속의도와 긍정적관계가 형성되어 여가동기, 여가제약 그리고 여가제약 협상전략과 전체적인 연계성이 있음을 검토하면서 내용을 전개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설계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 수집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이유는 제주도는 복잡하지 않으면서 이동거리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복잡한 도심보다 여유가 있으며,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환경적 조건이 다른 타 지역 못지않게 좋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여가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여가 제약 협상을 하는지 실증이 필요하므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예비노년층을 접하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예비노년층이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자기기입식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연세가 높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설문 대상자들은 옆에서 읽어주고 체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1차 조사인 예비조사와 2차 조사인 본조사로 이루어졌고 1차 예비조사는 2010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주시내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예비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의 추출

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2차 설문조사는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7.0 윈도우 프로그램과 AMO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념 간 구조모델을 확인하였다.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 하였고, 변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 하였다. 변수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직각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 여가제약 그리고 여가제약 협상전략과 여가참여 및 여가 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변량 구조분석을 사용하여 각 구성개념 간 경로계수 값을 통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에 의한 본 연구의 전체적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II. 이론적 배경

1.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과 특성

1) 예비노년층의 개념

예비노년층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합의되어지지 않은 과도기적 위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노년층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중년층과 노년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규명은 어렵지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적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년층은 생물학적·사회학적·직업·가족주기 등에 확실한 변동이 오는 시기⁹⁾로 인생주기에서 가장 다양한 역할 즉 사회·경제적 중심에 있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또한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의 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중년층의 개념을 발달 단계적 측면에서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있다.¹⁰⁾ 그러나 중년층을 인생의 전환기로 보는데 있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중년층의 개념을 정의하는 주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개인적 발달 관점에서의 중년층은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유전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리적 변화로 갱년기(climacteric) 증세가 나타난다.¹¹⁾ 갱년기는 45세에서 60세경까지 지속되는 현상으로 생물학적 상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9)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p.29.

10) E.H. Erickson(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W.W. Norton & Company, Inc.; E.B. Hurlock(1974). *Development psychology*,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Ltd. Newdelhi. pp.671-679.; G. Sheehy(1976). *Passage: Predictable Crisis of Adult Life*, NY: Dutton.; D.J. Levinson, C. N. Darrow, E.B. Klein, M.H. Levinson, & B. McKee(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 Knopf.; S.M. Ballard & M.L. Morris(2003). The Family Life Education Meads of Middle Life and Older Adults, *Family Relations*. Apr 52(2). pp.34-41.

11) 김명자(1998). 상계서, pp.30-35.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에서의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어 절정기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년층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은퇴 후의 노후 생활준비와 변화에 재적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¹²⁾

셋째, 생활 연령기준에 의한 관점으로 연구자들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성인의 중간 나이이며 보통 40세 이상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40-59세,¹³⁾ 35-60세까지로¹⁴⁾ 분류하여 정하는가 하면, 중년층을 성인의 중간 나이로 보고 탈 부모기에 해당하는 40-60세까지로 보고 있기도 하다.¹⁵⁾

노년층도 중년층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사회학적·심리학적 요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생리적 및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퇴화기에 있는 연령층을 말하며,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상실된 연령층을 말하고, 심리적 측면에서는 정신적 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다(Breen, 1960).¹⁶⁾

국외의 경우 중년층과 노년층을 구분하는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은퇴를 기준으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경우¹⁷⁾가 있고, 건강, 노화 또는 라이프스타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노년층이라 정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¹⁸⁾ 국내의 경우 노년층은 일반기업체의 은퇴 연령 기준이 55세에서 60세이기 때문에 5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기도 하고,¹⁹⁾ 연금 수령 기준에 의해 60세 이상

12) 김명자(1998). 전계서, pp.30-35.

13) 송지준·엄인숙(2008). 중년과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 고독감의 관계, 『대한관광경영학회』, 23(1), pp.43-62.; 박석돈(2005). 『노인복지론』, 서울: 삼우사, pp.32-35.; 이은아(2006).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pp.25-42.

14) 이인정·최혜경(200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사, pp.20-21, 재인용.

15) 김남순(1986). 『한국 중년남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명자·박성연(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pp.97-118.; 장재정(1987).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선미(1992). 『도시 중년기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호(2007). 『중년기의 여가생활형태가 가족 기능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김명자 외(2004). 『노인보건복지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p.15. 재인용.

17) V. Milan & A. Nisha(2008).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the Labor Market: The Case of Sri Lanka*, IZA Discussion Paper, 3456.

18) M.B. Regina(1997). Migration and the Life Course: Is There a Retirement Transis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 pp.109-119.; C. David, K.A. Herderson, & E.W. Beth(2009).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Senior Game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1(1), pp.41-56.

19) 이종환(2004). 부산시민의 세대별 여가활동 특성과 여가만족도 비료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6(1), pp.345-356.

으로 정하는 경우,²⁰⁾ UN이 정한 노인 연령인 기준인 65세 이상인 경우가 있다.²¹⁾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은 학계의 연구자 또는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1981)에서 규정하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중년층과 노년층에 연령은 연구자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중·노년층 연령대 구분 선행연구

년도	연구자	기준	중년층	노년층
1997	Regina	라이프스타일	pre-elderly: 55-64세	65세 이상
2003	Godbey	노화이론	-	young-old : 65-74세 old-old : 75세 이상
2006	David	수입/건강	-	65세 이상
2008	Milan et al.	은퇴	50-59세	60세 이상
2001	문숙재·여윤경	육구변화	45-64세	-
2004	이종한	생애주기	35-54세	55세 이상
2004	구교만·이은석	UN기준	-	65세 이상
2007	유창근·이희찬·한진영	라이프스타일	-	55세 이상

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정리

따라서 예비노년층은 이들 사이에 있는 연령층으로서 노년기를 앞둔 직전의 연령층에 해당하고 있으며, 범위는 50-64세²²⁾, 45-54세²³⁾, 45-64세²⁴⁾, 50-59세²⁵⁾ 등으로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예비노년층의 기준은 연령, 가족생활주기, 개

20) 최성재·장인협(2006). 전계논문, p.49.

21) 이영분(2004). 『고령화사회와 노인인구의 보건복지』, 건국대학교출판부.; 노인복지법(2004). 『2004년 5차 개정』.; 구교만·이은석(2004). 전계논문, pp.325-338.

22) 김남진(2000). 예비노인의 집단과 노인집단의 건강관심도 및 건강행위,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관련성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17(2), pp.99-110.

23) 정순희·김현정(2001). 예비노인,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2, pp.129-151; B.L. Neugarten(1968). *Middle Age and A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4) 문숙재·여윤경(2001). 예비노인의 은퇴와 경제적 복지의 예측, 『한국소비자학회지』, 12(1), pp.115-131.

25) 권오정(2005). 예비노년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경향, 『대한건축학회』, 21(2), pp.21-30.; 홍이경·오혜경(2005). 예비노년층의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별공간 계획요소에 대한 선호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pp.37-47.

인의 생리적·심리적 과정,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은퇴하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예비노년층을 구분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예비노년층의 연령에 대한 기준도 관점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²⁶⁾

예비노년층의 연령대를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작 시기를 30-40세, 끝나는 시기를 45-65세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사이의 연령대를 각각의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하고 있는 기준도 건강상태가 과거보다 현저히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노년층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자에 따른 예비노년층 연령대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예비노년층 연령대를 제시한 선행연구

년도	연구자	예비노년층 연령	연구내용
1997	Regina, M. B.	55세-64세 미만	예비노년층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이주와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다른 연령층과 비교 분석함.
2005	신화경·이준민	40세-60세미만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현재와 노후의 여가활동 변화경향연구.
2005	성기원·이연숙·장윤정	50세-60세미만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선호유형, 현재와 미래의 여가활동 욕구 분석함.
2006	이은석	50세-60세미만	예비노년층들을 위한 노년기의 여가활동 연계가능성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함. 개인특성에 따른 신체적 여가활동만족에 관한연구. 예비노년층을 구체적으로 계층화하여 연구할 것 제안.
2009	최병길·고보숙·서용건	40세-60세미만	여가활동 경험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예비노년층 여가교육 고취 제안.
2010	고보숙·최병길	40세-60세미만	여가참여 동기유형 군집에 따른 여가계약의 차이 있음. 제약요인 제거를 위해 동기부여 방안 제안.

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정리

26)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양식과 위기, 『대한가정학회지』, 29(1), pp.203-216.

선행연구에서 설정된 예비노년층의 연령대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노년층을 다가올 노년, 즉 제2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시기를 설계를 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예비노년층이란 “과거와 달리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어 있고, 고학력 소유자들이 많으며 또한 시간적·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층으로서 일반 기업체의 은퇴 연령인 55세를 하한연령으로 정하고, UN이 기준하고 노인복지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노인연령인 65세를 상한연령으로 하여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예비노년층의 여가 개념과 유형

(1) 예비노년층의 여가 개념

일반적인 여가의 개념은 시대적·사회적 배경 등 특정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치 및 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까지도 여가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지만 학계에서 합의된 정의는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여가를 시간적, 활동적, 의식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여가를 시간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의 하루 생활시간 중 생리적 시간과 노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보는 개념이다.²⁷⁾ 즉, 여가는 원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해야만 하는 먹고, 자고, 일하고 그리고 기타 허드렛일을 하고 남는 자유 시간 또는 자유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라 볼 수 있다.²⁸⁾ 이렇게 시간개념으로 보는 여가는 여가측정을 가장 손쉽게 계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유럽중심의 여가사회학(sociology of leisure)에서는 여가를 정의할 때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여가개념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²⁹⁾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상대적으로 일에서 벗어난 여가시간이 증

27) 김광득(1997).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p.89; S.R. Parker(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NY: International Publication service, p.20

28) 최병길(2009). 『관광경제학』, 서울: 백산출판사, pp.16-17; J.F. Murphy(1975). *Recreation and Leisur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29) 최병길(2009). 상계서, pp.16-17; J.F. Murphy(1975). *Ibid*.

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여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둘째, 활동적 개념으로서 여가를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휴식이나 오락을 위하여 사회적·개인적 의무감에서 벗어나 해방과 즐거움, 자유로움을 느끼며 취미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의 총체로 여가를 정의하고 있다.³⁰⁾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활동은 경제적 목적과 각종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때만 여가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수면, 식사, 노동 등과 같이 일상적으로 해야만 하는 활동은 여가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활동적 개념으로 여가를 본 경우는 관찰 상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계량화가 어렵다.

셋째, 의식적 개념으로서 여가를 정의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여가 개념은 자유시간과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며,³¹⁾ 자유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누구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개념으로의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에 자기가 직접 선택한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한 경우가 여가활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즉, 의식의 개념이라는 것이 철학적 요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의식개념에서의 여가 측정은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에 더욱 타당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여가개념들은 종합해서 예비노년층이 가지는 여가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예비노년층은 노년기 직전의 시기로서 노년층에서의 여가개념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은 여가를 통해서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의 기회, 삶에 대한 의욕 및 만족감의 증진, 스스로에 대한 신념과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유능감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 자율적 생활을 위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즐겁고 행복한 삶의 영위 등을 도모한다.³²⁾ 즉, 노년층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여가에서 찾고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노년기의 여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삶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³³⁾

30) J. Dumazedier(1974). *Sociology of Leisure*, NY: Elsevier, pp.16-17.

31) S. Grazia(1962). *Of Time, Work and Leisure*, NY: Twentieth Century Fund, pp.13-14.

32) M.J. Leitner & S.F. Leitner(2004). *Leisure in Later Life*, Binghamton, N.Y.: Haworth Press.

33) 함정혜·강선옥(2008).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와 노인여가의 개념,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5), pp.182-185.

예비노년층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이들의 여가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자기계발, 체험형 여가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고자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³⁴⁾ 그리고 앞으로 여행이나 문화예술관람, 스포츠관람, 창작적 취미활동, 봉사활동, 자기계발 활동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³⁵⁾ 스포츠활동, 취미활동, 사교활동, 놀이·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동의 개념으로 측정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³⁶⁾

이러한 맥락에서 예비노년층의 여가 개념은 노년을 준비하는 여가로서 노동과 사회적 긴장상태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자유 시간 또는 자유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라는 시간개념을 포함하면서,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찾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유능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고, 또한 노년이 되어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하는 활동들로서 활동의 개념을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예비노년층의 여가 개념은 일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자유재량시간에 자신의 의지에 의해 정신적·심리적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행하는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³⁷⁾

(2)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고령화속도의 영향으로 향후 노동력 구성에서 예비노년층에 해당하는 50대의 비중이 2030년에는 40.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³⁸⁾ 예비노년층들은 과거의 노년층과는 달리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들의 성향이 노년기에도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은 어떤 여가활동 유형을 선택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가활동은 상호 유사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고, 각 활동을 구분 할 수 있는 분류

34) 성기원·이연숙·장윤정(2005).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현황 및 미래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5(4), pp.131-146.

35) 통계청(2007). 『사회통계조사』, p.34.

36) 임향일(2007).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기원·이연숙·장윤정(2005). 상계논문, pp.131-146.; 이은석(2006).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참가유형과 여가인지감 및 여가몰입체험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pp.319-338.

37) 최병길(2009). 전계서, p.17

38) 한국개발연구원(2005). 『경제동향주요지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p.37.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형은 분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고,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즉, 대상이 어떤 층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노후설계를 하게 되는 예비노년층의 시점에서 여가생활에 대한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활동적인 여가유형과 비활동적인 여가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였다.³⁹⁾ 세대 간을 비교한 경우는 스포츠 활동, 관람 및 감상활동, 강습활동, 취미 및 창작활동, 사회·교제활동, 가족여가활동, 행락 및 관광활동 그리고 휴식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중년 세대는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⁰⁾

노년층의 여가에서는 개인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여가활동유형을 소극적 활동 개념으로 혼자 하는 활동과 적극적인 활동 개념으로 친화적 활동으로 분류하기도 하고,⁴¹⁾ 친밀활동, 단체활동, 개인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⁴²⁾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노인 여가활동 유형을 자기개발형, 스포츠 활동, 가족 중심활동, 종교활동, 사회참여 활동, 사교오락활동, 소일활동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한국노인의 여가활동 시간을 연구하기도 하였다.⁴³⁾

예비노년층의 여가는 노년층의 여가와 연계가능성을 고려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는데, 여가활동 유형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하였고,⁴⁴⁾ 예비노년층이 노년에 가서 해보고 싶은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여 선호경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선호하는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고,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비교하여 그 연계성과 지속여부 등을 예측해 보기도 하였다.⁴⁵⁾ 여가동기와 활동내용에 근거하여 분류한 경우는 스포츠·건강활동, 취미·교양활동, 오락·사교

39) 배소심·이영희(2005). 중년여성들의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 차이 분석, 『한국레크레이션학회지』, 28, pp.181-189; S.E. Iso-Ahola, E. Jackson, & E. Dunn(1994).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 pp.61-84.

40) 윤소영·차경옥(2004). 여가인식, 활동유형 및 여가제약의 세대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pp.99-107.

41) K.R. Allen & V. Chin-sang(1990). A Lifetime of Work: The Context and Meaning of Leisure for Aging Black Woman, *The Gerontologist*, 30, pp.734-740.

42)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 박미석·이유리(2003). 한국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pp.37-48.

44) 성기원·이연숙·장윤정(2005). 전제논문, pp.131-146.

45) 신화경·이준민(2005). 예비노년층이 선호하는 노후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pp.15-23.

활동, 행락관광활동으로 분류하고 있고,⁴⁶⁾ 취미·오락활동,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스포츠관람활동, 기타사회활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⁴⁷⁾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인지감 및 여가몰입체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여가활동, 사교적 여가활동, 문화적 여가활동, 자연적 여가활동, 정신적 여가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예비노년층이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인지감 및 몰입체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⁴⁸⁾ 한국기관의 유형 분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분류한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스포츠 건강부문, 취미·교양부문, 관람·감상부문, 사교부문, 관광·여행·행락부문, 놀이·오락·통신부문으로 분류하기도 했다.⁴⁹⁾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들은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성별, 성격 그리고 환경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하여 여가활동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구분의 기준을 두자면 예비노년층 여가활동이 노년기 직전의 활동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노년기의 활동이 과거와 단절되어진 활동이 아니므로 노년기의 여가활동 유형에서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노년층들은 다양하게 분산되는 활동보다 친목, 취미, 오락 위주 유형의 여가활동을 하는데,⁵⁰⁾ 그렇다면 예비노년층도 이미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건강상태도 여가활동 유형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노년층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스포츠여가활동 등 폭넓은 동적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집안 내에서 또는 먼 거리의 이동 없이 즐길 수 있는 정적여가활동을 즐긴다고 한다.⁵¹⁾ 여가활동 유형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이 있지만 예비노년층의 연령대나 건강상태 등을 중요한 변수로 생각했을 때 그 유형을 구분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면 <표 2-3>과 같다.

46) 김광득(2000).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p.91-95.

47)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연구원(2008). 전게서, p.84.

48) 이은석(2006). 전게논문, pp.319-338.

49) 성기원·이연숙·장윤정(2005). 전게논문, pp.131-346.

50) 임향일(2007).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과 생활 만족』,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 진영아(1995). 『노인층의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2-3> 여가활동 유형

활동 유형	여가활동의 구체적 내용	연구자들
스포츠 · 건강	혼자하는 운동(체조, 조깅, 줄넘기, 수영, 헬스) 단체운동-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춤, 에어로빅, 걷기, 산책, 약수터가기, 등산 묵상, 선, 요가, 단전호흡 운동경기 구경(야구장, 축구장 등),	Gorden et al.(1976), Iso-Ahola et al.(1994), 홍순혜(1984), 송정선(1996), 김광득(2000), 이은석(2005), 임향일(2007), 문화체육관광부(2008)
취미 · 교양	글쓰기/독서, 신문 및 잡지보기 노인학교, 교양강좌, 골동품, 우표, 수석수집 서예 및 묵화, 미술 및 음악감상, 사진활동 가정식물 재배 및 정원 돌보기(난, 분재, 봉어) 성경, 불경을 읽거나 설교, 찬송테이프 듣기	Iso-Ahola et al.(1994), 홍순혜(1984), 이선미(1991), 서병숙(1992), 송정선(1996), 박재간(1998), 김광득(2000), 임향일(2007), 문화체육관광부(2008), 박경란(2009)
관람 · 감상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영화, 연극 음악회 미술전시회 박물관 관람	Kelly et al.(1986), 홍순혜(1984), 홍성희(1997), 김광득(2000), 임향일(2007), 문화체육관광부(2008), 이은석(2005)
사교	경로당에 감 친구 및 친척집 방문 클럽활동, 낚시, 찜질방 자녀 집 방문(손자, 손녀 놀아주기) 가족과의 대화, 가족동반 외식이나 외출 친목회, 동창회, 향우회 참여 소풍, 관광여행, 친구들과 대화하기	Kelly et al.(1986), Allen et al.(1990), Iso-Ahola et al.(1994), 홍순혜(1984), 이선미(1991), 송정선(1996), 박재간(1998), 김광득(2000), 이은석(2005), 임향일(2007), 문화체육관광부(2008), 박경란(2009)
오락	화투, 장기, 바둑, 카지노, 인터넷 게임	Iso-Ahola et al.(1994), 송정선(1996), 김광득(2000), 임향일(2007)
봉사	자원봉사활동(동사무소, 복지관, 공원 등에서)	Kelly et al.(1986), Reizes et al.(1995), 홍순혜(1984), 송정선(1996), 박재간(1998), 김광득(2000), 이은석(2005), 임향일(2007), 박경란(2009)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중 중년층, 노년층 그리고 예비노년층을 키워드로 하여 연구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예비노년층의 설문 답변을 참고로 하여, 조깅, 헬스, 골프, 배드민턴 등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포함되는 경우 동적여가활동으로 명명하였고, 글쓰기/독서, 서예, 원예, 찜질방등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정적여가활동으로 각각 명명하여 구분하였다.

3)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특성 및 중요성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여가활동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세대별 여가활동 특성 중 예비노년층이 속하는 50대와 60대는 TV보기/라디오 청취와 같은 정적여가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TV보기/라디오 청취를 즐기는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었다. 다소 활동적이고 동적이라 할 수 있는 등산의 경우는 가장 낮은 참여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참여의 목적은 친목을 위해서거나 정보습득을 위해서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⁵²⁾ 그러나 최근에는 정적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TV보기/라디오 청취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걷기나 등산 그리고 종교 활동 등 활동적인 여가활동이 상위권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⁵³⁾

이미 일본 노년층들은 걷기 붐이 일어나서 워킹슈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은 여행용 워킹슈즈를 선호하여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워킹슈즈가 도입 된지 오래 되지 않았지만 중·장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⁵⁴⁾

이러한 현상을 보면, 걷기나 등산과 같은 여가활동을 점점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여가참여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 진다면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교만 외(2004)는 중·장년기에 규칙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는

52)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pp.112-113.

5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전계서, pp.92-94.

54) 박동석·김대환·이연선(2004). 『고령화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pp.267-269.

개인내적 측면에서 여가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활동을 지속하려는 마음이 강하다고 한다. 따라서 여가참여를 꾸준히 하려는 여가 지속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가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⁵⁵⁾ 즉, 예비노년층의 경우도 노년기 전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접할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지속하고자 하는 여가활동을 빨리 찾게 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행복감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특성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50대와 60대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특성

50대					60대				
동반자 (N=473)	참여목적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10가지			동반자 (N=473)	참여목적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10가지		
혼자서 30.4	개인의 즐거움	23.0	TV/라디오	95.2	혼자서 34.2	개인의 즐거움	21.3	TV/라디오	94.9
	건강	23.1	목욕/사우나	86.9		건강	26.6	목욕/사우나	87.1
가족 /친척 38.4	스트레스 해소	14.5	외식	82.6	가족 /친척 32.3	스트레스 해소	12.1	외식	81.1
	마음의 안정 /휴식	14.3	낮잠	78.4		마음의 안정 /휴식	14.8	신문/잡지	78.2
친구 25.0	시간 때우기	4.1	신문/잡지	77.2	친구 27.1	시간 때우기	5.1	낮잠	77.1
	자기발전 /계발	6.0	가족/ 친지 방문	72.2		자기발전/ 계발	4.8	가족/ 친지 방문	72.8
직장 동료 3.7	대인관계	10.5	산책	71.2	직장 동료 3.9	대인관계	12.3	산책	72.0
	자아실현/ 자아만족	3.6	쇼핑	66.6		자아실현/ 자아만족	2.3	계모임/동창회 사교모임	67.7
동호회 회원 2.6	가족친목	0.7	목욕 사우나	64.7	동호회 회원 2.5	가족친목	0.4	등산	67.4
	정보습득	0.2	등산	64.7		정보습득	0.3	찜질방	62.0
전체 100.0	전체	100.0	중복응답	누적수치	전체 100.0	전체	100.0	중복응답	누적 수치

주) 문화관광부·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p.112.

55) 구교만·이은석(2004). 전개논문, pp.325-338.

다음은 과거의 노인층과 새로운 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변화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특성이 향후 2018년 이후 노년층이 되는 예비노년층 특성과 유사할 것이라고 보여지며, 그들의 특성 변화를 조금이나마 짐작 할 수 있다. 한국의 고령사회가 시작되는 2018년 이후⁵⁶⁾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가족이나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이 아니며,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고 개성이 매우 강한 세련된 노인들이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룩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들이고, 이들은 건강과 경제력, 교육수준 면에서 과거의 노인들과는 또 다른 차이를 갖고 인생의 후반기로 다가가고 있다.⁵⁷⁾ 아마도 이들은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며, 차원이 다른 욕구를 가지고 여가활동을 찾게 될 것이다.

<표 2-5> 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특성

구분	과거의 노인층	새로운 노인층
심신상태	병약, 어둡고, 고집셈	건강, 밝고, 유연함
생활의식	보수적, 비관적 인생관	합리적, 미래지향적 인생관
노년기 인식	인생의 종말기	자기실현의 기회, 제3의 인생
삶의 태도	검약,소박,무취미	여유, 즐김, 개성 있는 다양한 취미
독립성	자녀에게 의지, 독립성 약함	배우자/사회시스템에 의지, 독립성 강함
노후설계	자녀세대에 의존	계획적인 노후설계, 독립세대 유지
가치관	노인은 노인답게	나이와 젊음은 별개
여가생활	여가는 수단	여가자체의 가치부여
자산처분	자손에게 상속	자기를 위해 사용
여행형태	친목단체 등 단체여행	여유 있는 부부여행
취미생활	게이트볼 등 노인끼리 교류	취미의 다양화, 다른 세대와 교류
생활스타일	한국전통식 생활	터문화 교류적 생활
유행감각	둔함, 후기추종자	예민, 초기 채용자

자료: 박동석 외(2004). 고령화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p.269.

56) 삼성경제연구소(2008). 전계서, p.1.

57) 박동석·김대환·이연선(2004). 전계서, pp.259-270.

예비노년층 여가가 중요한 이유는 연령이 증가하면 가정환경 및 지원도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른 여가태도와 활동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예비노년층의 경우는 신체적 변화 이외에도 심리적, 사회적 역할 갈등, 상실감, 위축 등 정서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변화들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가치함, 불안, 초조, 우울 등의 부정적인 장애들을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실이며, 이를 극복하고 자기역할을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예비노년층들에게 여가참여를 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자주 노출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노년층까지 연계 가능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연구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2.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

1)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의 개념

여가동기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기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개인 내부의 추동력(driving force) 또는 신체적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는 내적 상태(inner state)라고 정의한다.⁵⁸⁾ 즉, 행동을 취하게 하는 준비태세로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이 실제로 작용되는 과정 혹은 작용되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동기부여이며, 행동의 강도(intensity)와 방향(direction)을 결정하여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 하에서는 일어나고, 또 다른 어떤 상황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⁵⁹⁾ 동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활동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동기의 양상은 매우 다양

58) 박시사(2005). 『관광소비자행동론』, 서울: 대왕사, p.224.

59) 박소현·김문수 역.(2001). 『동기: 이론, 연구, 그리고 활용』, 서울: 시그마프레스(H. L. Petri (1995). *Motiv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4th ed), Wadsworth Publishing Co.), pp.3-4.

하여 시간과 공간, 심리적, 생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기 자체를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⁶⁰⁾ <그림 2-1> 은 동기와 행동 간의 심리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2-1> 동기·행동 심리과정



자료: 정호권(2006). 『레저 스포츠 활동의 제약요인과 참여 동기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8.

위의 이러한 개념들을 여가와 관련시키면, 여가행동 생성에 필요한 심리적 원동력이 여가욕구가 되는 것이고, 여가 행동을 이끄는 심리적 에너지는 여가동기가 되는 것이다. 여가동기는 여가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가동기가 사람들의 여가행동 참여 방식을 설명해 주고 여가참여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⁶¹⁾

여가동기를 이해한다면 여가행동이 왜 일어나가를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예비노년층의 여가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가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과 일맥상통 한다.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는 노년기의 여가동기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여가활동은 예비노년기에서의 여가경험이 있을 때 더욱 자연스럽게 노년기의 여가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는 노년기에 있어서 여가활동을 원활히 연계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가활동참여를 유발하는 심리적인 이유라고 정의 해볼 수 있다.

60) 류정부·이강현(1990). 『스포츠심리학』, 대우학술총서, 서울: 민음사, p.23.

61) S.C. Jang & C.E. Wu(2006). Seniors' Travel Motivation and the Influential Factors: An Examination of Taiwanese Seniors, *Tourism Management*, 27, pp.306-316.

2)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 유형 및 구성요인

여가동기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자기결정성이론을 들 수 있다.⁶²⁾ 이 이론은 기존의 내·외재적으로 나눈 이분법적 분류로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안한 이론이며, 자기결정성 연속선상을 따라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하는 여러 개의 여가동기 유형을 말한다.

여가동기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내재적 여가동기로서 즐거움이나 재미를 위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⁶³⁾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외부보상 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할 때 내적으로 동기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내재적 여가동기는 자발적 경험을 할 때 가능하며, 지각된 자유감은 내재적 여가동기의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내재적 여가동기는 ‘여가활동의 목표가 그 자체에 있는냐’의 여부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재적 여가동기가 활성화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자기효능감인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자기 능력에 대해 만족하거나 보상받지 못하면 자기효능감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내재적 여가동기는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내재적 여가동기는 합목적적(autotelic)이고, 여가행동의 본질로 설명된다.⁶⁴⁾

둘째, 외재적 여가동기로서 외부의 작용으로 여가행동이 이뤄질 때 외부에서 작용된 힘을 말한다. 외재적 여가동기는 자기결정 외재적 여가동기와 비자기결정 외재적 여가동기의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⁶⁵⁾ 즉, 외재적 여가동기는 활동 그 자체보다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골프를 치는 것은 대인관계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자기결정 외재적 여가동기이다. 하지만 ‘주위에서 권유하기 때문에 한다’ 또는 ‘골프를 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로 부터 따돌

62) E.L. Deci & R.M. Ryan(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pp.6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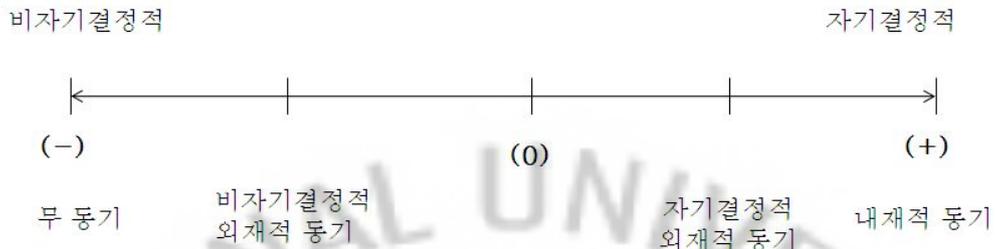
63) E.L. Deci & R.M. Ryan(1985). *Ibid* p.64

64) 고동우(2002). 여가동기와 체험의 이해: 이중추동모형과 이중통로 여가체험모형, 『한국심리학회지』, 3(2), pp.1-23.

65) E.L. Deci & R.M. Ryan(1985). *Ibid* p.64.

림 당할까봐 두려워서 한다'라고 한다면 비자기결정 외재적 여가동기에 해당된다.

<그림 2-2> 동기의 유형



자료: Deci, E. M. & Ryan, R. L.(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셋째, 가장 비자기결정적인 형태에 속하는 무동기로서 여가동기가 없는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무관심과 냉담을 수반하는 여가동기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가동기가 없을 때 무동기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여가활동은 내재적 여가동기나 외재적 여가동기가 없이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⁶⁶⁾ 즉, 무동기로 여가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 목적 없이 여가활동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여가활동을 중지하게 된다.⁶⁷⁾

이와 같이 여가동기란 여가활동을 이끄는 심적·외적 에너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에너지인 여가동기가 사람들의 여가행동 참여 방식을 설명해 주고, 여가참여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여가동기는 여가활동 참여자의 내적 조건 및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가동기에 대한 이론적 연구보다는 여가환경 및 조건에 따른 여가동기를 분류하는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⁶⁸⁾.

이와 같이 여가동기의 세부적인 유형은 자기결정의 연속성상에 가장 자기결정적인 것부터 가장 비자기결정적인 것까지 내재적 동기, 자기결정적 외재적 동기, 비자

66) E.L. Deci & R.M. Ryan(1985). *op. cit.* pp.62-70.

67) M. Fortier, R. Vallerand, N. Briere, & P. Provencher(1995). Competitive and Recreational Sport Structures and Gender: A Test of Their Relationship with Participa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ports Behavior*, 16, pp.124-145.

68) 오상훈(2005). 도시와 농어촌의 여가활동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7(1), pp.7-23.

기결정적 외재적 동기, 무동기로 배열된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이용한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접근의 발견적(heuristic)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자기결정성 이론은 대인관계, 교육, 일, 스포츠, 여가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유용한 연구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모든 세대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⁶⁹⁾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동기 구성요인들은 심리안정감, 자신감, 성취감, 즐거움, 사회성, 건강, 자아실현 등으로 여가행동을 하는 대상들에게 내재되어있는 다양한 느낌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요인들은 그 대상에 따라 중요도의 차이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요도의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 여가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여가동기 요인은 지적, 사회적, 효능적, 휴식적 동기 요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⁷⁰⁾ 위의 동기요인에 신체적 동기, 유능감 인지 동기 요인이 더하여져 분류되기도 하였다.⁷¹⁾ 그리고 심리적, 교육적, 심미적 동기 요인이 있고,⁷²⁾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동기요인은 변화지향적, 가족중심적, 휴식적, 모방적 동기 요인 등으로 분류되어 연구되기도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족중심적 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⁷³⁾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여가동기 요인을 구분한 경우는 여가동기 요인이 자발적 동기와 의무적 동기 요인으로 측정되었고, 문화적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경우는 지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과시적 동기로 요인으로 요인화되어 측정되기도 하였다.⁷⁴⁾ 종교활동을 여가활동으로 간주하여 여가동기 요인을 본 경우는 내재적 동기, 자기결정 외재적 동기, 비자기결정 외재적 동기 요인으로 요인화하여 측정하기도 하였다.⁷⁵⁾ 이처럼 여가동기는 대상만 다를 뿐 최근까지 여가행동을 이해하는데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69) 고동우(2002). 전제논문, p.16.

70) 원형중(1998). 성인근로자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제약요인에 관한 기본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2), pp.369-386.

71) 김성희·이철원(2003). 도시근로자의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pp.391-400.

72) 곽한병(2006). 여가활동의 참여동기와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7(6), pp.703-712.

73) 이영관(2007). 여가동기와 여가활동유형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19(4), pp.343-359.

74) 윤설민·장윤정·김홍렬(2009). 문화적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동기, 제약 및 만족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8(2), pp.259-275.

75) P.O. Brian & J.V. Robert(2001). Religious Motivation in the Elderly: A French-Canadian Republication and an Exten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1), pp.53-59.

노년층의 여가활동 중 관광·여행을 하는 경우 동기 요인은 건강, 일상탈출, 사회화, 지식추구, 향수, 보상, 과시적 동기 요인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자기과시적, 자기효능감, 지식추구, 휴식, 사회적 동기 요인으로 분류하였다.⁷⁶⁾ 최근 연구 중 은퇴 노인이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요인 연구를 보면, 심리·안정 요인, 건강·체력 요인, 사회·인간관계 요인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⁷⁷⁾

예비노년층에 관한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동기에 관한 연구는 초기 연구 단계에 있어서 많지 않은 편이지만, 가장 최근 연구에서 지적, 신체적, 휴식적, 사회적 동기로 요인화 하여 연구하고 있었고, 이 연구에는 지적 동기가 가장 강한 동기 요인으로 측정되었다.⁷⁸⁾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어떤 대상이나에 따라 여가동기 요인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⁷⁹⁾

3)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의 측정항목

국내에서 여가동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199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다.⁸⁰⁾ 그리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활성화 된 시기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⁸¹⁾ 하지만 주로 성인⁸²⁾이나 청소년 대상⁸³⁾인 연구가 대부분이고 노인, 중년층 그리고 예비노년층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세분화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다. 즉, 여가동기에 대한 측정척도들이 다양하지 않

76) S.C. Jang & C.E. Wu(2006). *op. cit.* pp.306-316.; H.C. Cathy, A.C. Liping, & K.F. Kevin(2007). A Model of Senior Tourism Motivation-Anecdotes from Beijing and Shanghai, *Tourism management*, 28, pp.1262-1273.

77) 고연화(2009). 은퇴 노인의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재사회화 및 사회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 pp.811-820.

78) 고보숙·최병길(2010).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제약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1), pp.249-269.

79) 문숙재·윤소영·윤지영(2005). 가족여가의 의미와 동기에 따른 여가만족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pp.31-39

80) 장윤희(1992).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pp.145-161.

81) 고동우(2000). 전개논문, pp.1-23.; 채선애·한성열(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8(2), pp.17-31.

82) 원형중(1998). 전개논문, pp.369-386.; 김성희·이철원(2003). 도시근로자의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 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pp.391-400.; 전태준·이철원(2003). 도시 여성근로자의 여가계약형태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2(3), pp.411-420.

83) 강길현(2003). 청소년 여가활동 참여정도와 여가계약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pp.851-865.; 조아미(2005). 청소년 여가동기가 여가만족도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pp.333-353.; 이영관(2007). 전개논문, pp.343-359.

아서 특정 대상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가동기척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여가동기의 측정도구는 Beard와 Ragheb(1983)이 개발한 여가동기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⁸⁴⁾ 국내에서도 이를 번안하여 여가동기를 측정하고 있다. 여가동기 척도는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적동기, 사회적동기, 유능적동기, 휴식동기 요인으로 각 8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⁸⁵⁾ 그 밖에 여가동기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체육학 분야에서 스포츠동기척도(SMS: sport motivation scale)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⁸⁶⁾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Beard와 Ragheb(1983)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합한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 수는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로 유사한 문항들이 많아 예비노년층들이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응답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예비노년층들이 응답하기 쉽게 단순화하여 18개의 문항으로 축소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문항들로 구성하였고, 여가동기 요인은 정서/심리적 안정동기 요인, 건강동기 요인, 사회성동기 요인, 즐거움동기 요인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세부 측정항목은 정서·심리적 안정동기 요인에서는 피곤한 일상에서 안정을 위해서,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싶어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기분전환을 위해서, 생활에 활력소를 얻기 위해서와 같고, 건강동기 요인에서는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수하고 싶어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와 같이 측정항목을 정하였다. 사회성동기 요인은 친구/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서, 내 가치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소속의식을 느끼고 싶어서와 같은 항목을 세부측정 항목으로 하였으며, 즐거움동기 요인은 재미있게 잘 놀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만족을 위해서라고 세부 측정항목을 정하여 연구목적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예비노년층이 손쉽게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84) 채선애·한성열(2002). 전계논문, pp.17-31.

85) 원형중(1998). 전계논문, pp.369-386.

86) L. Pelletier, M. Fortier, R. Vallerand, K. Toson, N. Brier, & M. Blais(1995). Toward a New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 Motivation in Sports: The Sports Motivation Scale(SM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hysiology*, 17, pp.35-53.

위의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추출된 동기의 측정항목

동기 요인	동기항목	선행연구
정서· 심리적 안정	피곤한 일상에서 안정을 위해서	Uysal et al.(1993), Scott(1996), Crompton & McKay(1997), Hubbard et al.(2001), Cathy et al.(2007), Locks-Atkinson et al.(2007), Son et al.(2008), 정소연(2004), 임태성 외(2008), 최성범(2008)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싶어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기분전환을 위해서	
	생활에 활력소를 얻기 위해서	
건강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해서	Uysal et al.(1993), Scott(1996), Crompton & McKay(1997), Hubbard et al.(2001), Cathy et al.(2007), Locks-Atkinson et al.(2007), Son et al.(2008), 정소연(2004), 임태성 외(2008), 최성범(2008)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수하고 싶어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사회성	친구/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Uysal et al.(1993), Scott(1996), Crompton & McKay(1997), Cathy et al.(2007), 정소연(2004), 정호권(2006), 최성범(2008)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서	
	내가치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소속의식을 느끼고 싶어서	
즐거움	재미있게 잘 놀기 위해서	Uysal et al.(1993), Scott(1996), Hubbard et al.(2001), Cathy et al.(2007), Locks-Atkinson et al.(2007), Son et al.(2008), 정소연(2004), 정호권(2006), 유승각(2009)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만족을 위해서	

자료: 선행 연구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3.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1)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개념

여가제약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제약(constraint)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약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기는 하나 그 의미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 진다. 결국, 제약이란 참여를 제한하거나 억제하여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행동을 방해하는 이유로 정의하고 있다.⁸⁷⁾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제약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은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못하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가제약에 대해 처음으로 정의내린 학자는 Luwin(1951)인데, 여가제약이란 사회·심리적 의미에서 개인의 여가행동을 제한하는 힘으로 경험되는 내적인 심리상태나 특성 또는 성격과 외적환경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⁸⁸⁾

이와 유사하게 여가제약을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여, 혹은 만족을 방해하는 요인을 보다 체계화한 틀로서 개인이 인지하는 내적심리상태와 대인적이고 상황적인 외적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보고 있기도 하였다.⁸⁹⁾ 그리고 개인이 여가를 즐기고 참여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이며,⁹⁰⁾ 개인의 여가선호를 형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여가에 대한 참여나 여가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인⁹¹⁾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여가제약은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이면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는 싶지만 참여를 방해하는 이유이고,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을 저해시켜

87) D.W. Crawford, E.L. Jackson, & G. Godbey(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tudies*, 15(7), pp.1-11.

88) 한현숙(2008). 『문화이벤트 동기와 제약이 선호, 협상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9) M.S. Searle & E.L. Jackson(1985). Socioeconomic Variations in Perceived Bar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among Would-Be Participants, *Leisure Sciences*, 7, pp.227-249.

90) M.S. Searle & E.L. Jackson(1985). *op. cit.* pp.227-249.

91) T. Kay & G. Jackson(1991). Leisure despite Constraint: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pp.301-313.

개인의 궁극적 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여가제약에 대한 연구는 1990년 후반 이후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대상층들을 세분하여 연구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중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제약을 개념화하고 일반화 한 연구가 저조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예비노년층이 관심 대상이 된지는 최근 몇 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상황은 여가활동에 참여 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노화가 한참 시작되는 시기이며, 심리적으로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생각하고 (이미 은퇴를 하였을 수 있음) 역할상실이 찾아오는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은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불안정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상황 총체가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을 저하시켜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2)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유형 및 구성요인

여가제약의 유형은 초기에 개념적 분류와 경험적 분류로 구분되었다. 개념적 분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분류법으로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된 분류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반면에 경험적 분류는 개념적 분류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분류한 것으로서 제약의 유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분류하기에 여러 가지 장점은 있으나 인구집단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어렵고, 다양한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을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개념적 분류를 가지고 유형화 한 경우를 보면, 개인의 재능, 능력, 환경, 시간, 금전 등의 내용을 가지고 내재적제약, 외적제약으로 분류하였고,⁹²⁾ 또 다른 유형은 물리적 능력, 관심, 시간, 비용, 시설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내용에서 개인적 제약, 사회적제약으로 분류하여 유형화 하였다.⁹³⁾ 그리고 참여와 선호와의 관계에서

92) D.A. Franken & W.F. Van Raaij(1981).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 pp.330-337.

인간내적제약, 대인적제약, 구조적제약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며,⁹⁴⁾ 그 외에도 매개적제약, 선행적제약⁹⁵⁾으로 분류하여 유형화 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2-7>와 같다.

<표 2-7> 여가제약의 개념적 분류

연구자	연도	제약 유형	조사 내용
Franken et al.	1981	내적제약	개인의 재능, 능력, 지식, 관심
		외적제약	환경, 시간과 돈의 부족, 거리, 시설부족
Boothby et al.	1981	개인적제약	물리적 능력, 관심
		사회적제약	시간, 비용, 시설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
Crawford et al.	1987	인간내적제약	참여보다는 선호에 영향을 줌
		대인적제약	선호와 참여에 영향을 줌
		구조적제약	참여경험을 통한 선호가 이미 형성
Henderson et al.	1988	매개적제약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명확하게 관련되어 나타남
		선행적제약	개인적능력, 개성, 사회화된 인자, 장애와 관련된 태도

자료: 선행연구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경험적 분류를 보면 이유의 범주와 조직의 범주를 43개 항목을 가지고 요인 분석하여 분류하기도 하였고,⁹⁶⁾ 여가제약이 가족생활주기와 갖는 관계의 형태에 따라 U자형관계, 역 U자형관계, 정 관계로 분류하기도 하였다.⁹⁷⁾ 중·노년의 여가제약으로는 시간제약, 외적자원 제약, 능력제약(사회성/신체적), 복지제약으로 분류되기도 하였고,⁹⁸⁾ 여성의 레크리에이션 참여제약으로는 시간, 금전, 시설, 가족 의무, 인식 문제, 흥미, 의사결정, 인상, 기술, 사회적 제약으로 분류하고 있었다.⁹⁹⁾

93) J. Boothby, M.F. Tungatt, & A.R. Townsend(1981). Ceasing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Reported Reason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pp.1-14.

94) D.W. Crawford & G. Godbey(1987). *op. cit.* pp.119-127.

95) K.A. Henderson, D. Stalnaker, & G. Taylor(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pp.69-80.

96) J. Boothby, M.F. Tungatt, & A. R. Townsend(1981). *Ibid.* pp.1-14.

97) P.A. Witt, & T.L. Goodale(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and Leisure Enjoyment and Family Stages, *Leisure Science*, 4, pp.24-49.

98) F.A. McGuire(1984). A Factor Analytic Study of Leisure Constraints in Advanced Adulthood, *Leisure Sciences*, 6, pp.313-326.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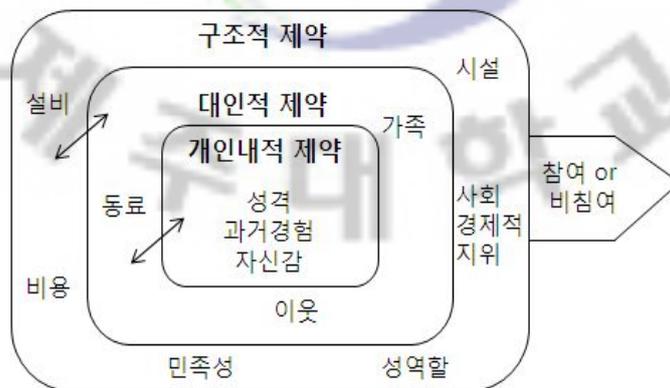
<표 2-8> 여가제약의 경험적 분류

연구자	년도	제약 유형	조사대상내용
Boothby et al.	1981	이유범주, 조직범주	여가제약 43항목
Witt et al.	1981	U자형관계, 역U자형관계, 정관계 등	여가제약 18항목
McGuire	1984	외적자원, 시간, 승인, 능력(사회적/신체적), 복지 등	여가제약 30항목
Henderson et al.	1988	시간, 금전, 시설, 가족관련 요소, 인식문제, 흥미, 의사결정, 인상, 기술, 사회적 부적합성	여가제약 55항목

자료: 선행연구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여가제약 유형은 대상층을 달리 하면서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가제약을 유형화 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가제약이라는 주제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그 유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Raymore(2002)는 여가제약의 단계적 모형을 수정해서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여 여가제약을 유형화 하였다.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여가제약



자료: L.A. Raymore(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pp.37-51.

99) K.A. Henderson, D. Stalnaker, & G. Taylor(1988). *op.cit.* pp.69-80.

이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여가연구의 유용성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여가와 관련한 환경체계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제약을 느끼며 그 과정에서 참여와 비참여의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여가제약에 대해 위계적 모형을 재구성하여 대인적,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각각 미시체계와 거시체계로 배치하였으며, 개인내적 제약요인들은 대인적제약 요인들 그리고 구조적제약 요인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⁰⁾

학자들의 연구가 지속되면서 여가제약은 내재적제약, 대인적제약, 구조적제약으로 유형화되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여가제약 유형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 2-9>와 같다.

<표 2-9> 여가제약 유형에 관한 주요 연구

유형	연구자	연구내용
유형화	Crawford et al. 1987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으로 구분
	Henderson et al. 1987	개입 요인, 선택적 요인으로 구분
단계화 및 검증	Crawford et al. 1991	Crawford et al.(1987)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가 제약의 단계적 모형 형성
	Raymore et al. 1993	Crawford et al.(1991)의 여가제약 모형을 메타모형을 이용하여 검증
	Hawkin et al. 1999	Crawford et al.(1991)의 여가제약 모형을 메타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나 실패함
단계모형 수정	김유일 외 2000	Crawford et al.(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가제약의 단계성을 검증
	Raymore 2002	Gibson(1989)의 생태모형을 이용 Crawford et al.(1991)의 모형 수정, 여가제약을 환경적 조건으로 봄

자료: 선행연구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는 초기 연구에서 이론적, 개념적, 분석적 결여되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보완되어져 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 연구의 쟁점을 보면 기

100) L.A. Raymore(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pp.37-51.

존 전제가 여가제약은 여가참여를 방해하여 참여를 막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여가제약이 항상 여가참여를 막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¹⁰¹⁾

따라서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면 6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단계로서 서비스의 관점에서 레크리에이션 참여와 여가에 대한 즐거움이 서비스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계층과 여가활동 집단(능동적, 수동적)에 따라 지각하는 여가제약의 차이를 검증하여 본 결과 사회계층이 낮고 수동적인 집단인 경우 흥미부족이 불참의 이유로 나타났고, 보다 능동적인 집단에게는 시설, 시간, 비용이 주된 제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¹⁰²⁾

두 번째는 2단계로서 그 연구의 흐름은 참여 장애(barriers)에 대하여 1962년 ORRRC(The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연구와 1978년 TORPS(The Tourism and Outdoor Recreation Planning Study)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되어졌다. 특정 장애에 대한 분석이나 사회경제적·인구통계적 요인 또는 여가활동 유형별 장애에 대한 개인적 관심 정도에 머물렀다.

세 번째는 3단계로서 여가제약이 개념화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제약인 시설의 부족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관심으로부터 비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제약은 무엇인가라는 데에 관심을 두고, 내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의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이 시기는 여가관련 저널들을 통해 여가제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¹⁰³⁾

네 번째는 4단계로서 여가제약을 측정하고 제약에 의한 여가선택의 영향을 해석하는데 대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구체적 과정으로 통계적 방식등을 이용하여 여가 제약 형태와 분류를 시도하고, 기준이 되는 변수들의 범주를 규정하고, 인구변인들

101) T. Kay & G. Jackson(1991). *op.cit.* pp.301-313.; D. Scott(1991). The Problematic Nature of Participation in Contact Bridge: A Qualitative Study of Group-Related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pp.321-336.; S.M. Shaw, A. Bonen, & J.F. McCabe(1991). Do More Constraints Mean less Leisur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s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4), pp.286-300.; D. Samdahl & N. Jekubovich(1997). A Critique of Leisure Constraints: Comparative Analyses and Understanding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4), pp.430-452.

102) G. Romsa & W. Hoffman(1980). An Application of Non-Participation Data in Recreation Research: Testing the Opportunity Theory, *Journal of Leisure Science*, 12, pp.321-328.

103) G. Godbey(1985). Nonuse of Public Leisure Service: A Model,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는 5단계로서 여가제약을 모형화하고, 이를 계층적이며 연속적인 과정의 모델로 전환시켰고,¹⁰⁴⁾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여가계약 협상과정의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¹⁰⁵⁾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Hubbard와 Mannell(2001)에 의해 개발된 모형을 검증하고, 한 단계 발전되고 확장된 여가계약 협상과정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¹⁰⁶⁾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2-10>의 내용과 같다.

<표 2-10> 여가계약 연구의 흐름

구분	흐름
1단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레크리에이션 참여와 여가즐거움에 대한 서비스부족
2단계	참여 제약에 대한 분석이나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또는 여가활동별 제약에 대한 개별적 관심
3단계	여가계약 개념화
4단계	여가제약을 측정하고 여가제약에 의한 여가선택의 영향을 해석
5단계	여가제약의 계층적 모델
6단계	여가계약협상 과정 모델

자료: E.L. Jackson & D. Scott(1999). Constraints to Leisure. In: E.L. Jackson & T.L. Burton(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21C*.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pp.229-231.; 한현숙(2008). 『문화이벤트 동기와 제약이 선호, 협상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0.

여가계약 연구는 여가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시간이 변화하고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여가선호 추세도 달라지고 참여형태도 달라지게 마련인데, 이러한 여가제약에 대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여가의 선택과 경험에 대한 변화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예비노년층의 여가계약 요인을 추출하기 위

104) D.W. Crawford, E.L. Jackson, & G. Godbey(1993). *op.cit.* pp.1-11.

105) J. Hubbard & R. Mannell(2001). *op.cit.* pp.145-163.

106) A. Loucks-Atkinson & R.C. Mannell(2007). Role of Self-Efficacy in th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The Case of Individuals with Fibromyalgia Syndrome, *Leisure Science*, 29, pp.19-36.; J.S. Son, A.J. Mowen, & D. Kerstetter(2008). *op.cit.* pp.198-216.; 최성범(2009).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협상효능감, 여가동기, 여가계약, 여가협상 및 여가참여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4), pp.145-156.

해 여가제약 요인에 대한 구성요인들을 국내·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가제약 연구에서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로서 여가제약 요인은 사회적 고립 요인, 접근 가능성 요인, 개인적 사유, 빈곤 요인, 시간구속, 시설제약 요인의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핵심요소로는 시간, 건강, 나이, 정보, 금전, 동료(친구)제약 등으로 보았다.¹⁰⁷⁾

영국 다운힐 스키장에서 스키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검증한 경우는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 비스키어들이 기존 스키어들에 비하여 추위에 대한 두려움과 다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참여비용에 대한 부담과 같은 내재적제약 그리고 대인적제약 요인에 더 많은 제약을 느껴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⁸⁾

여가제약의 단계적 모델을 기본으로 연구한 경우에는 여가동기의 힘과 여가제약의 인식 사이의 관계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균형제안(balance-proposition)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고, 그 결과 여가제약은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제약요인은 개인적/심리적 관심 부족, 흥미부족, 파트너 부재, 지식부족, 시간부족 등이었고,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여가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보면 동기의 힘이 균형이라고 제안했을 때, 제약 인식과는 부정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하였다.¹⁰⁹⁾

또한 여가제약 요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경우는 구조적제약이 시간부족, 금전 부족, 접근성 부족, 건강문제, 장비부족, 기회부족, 지식 및 기술 부족 등으로, 개인적제약은 두려움, 연령한계, 신체적 능력한계, 낮은 지식 및 기술, 도덕적 문제, 권리부재,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활동 등의 제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대인적제약은 함께 참여할 동료 부재, 의무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여가제약 요인을 분류하였다.¹¹⁰⁾

107) E.L. Jackson & P.A. Witt(1994). Change and Stability in Leisure Constraints: A Comparison of Two Surveys Conducted Four Years Apar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 pp.85-105.

108) S. Hudson & D. Gilbert(1999). Tourism Constraints: The Neglected Dimension in Consumer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8(4), pp.67-78.

109) B. Carroll & K. Alexandris(1997).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 Relationship to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 Gree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3), pp.279-299.

110) L.A. Dominguez(2003). *Constraints and Constraint Negotiation by Women Sea Kayakers Participating in a Women-Only Course*, Submitted to Michigan State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Park, recreation, and Tourism Resources.

여가제약 요인을 서비스 마케팅의 실무 지침서로 제시한 연구에서는 여가제약 요인을 개인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으로 분류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그리스의 12개 스키 관광목적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들 제약요인을 여가제약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 결과를 마케팅의 실무 지침서로 제시한 것이다.¹¹¹⁾

최근에는 여가제약 협상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수줍음, 에너지 부족, 불안함을 내재적제약 요인, 파트너 부재, 파트너의 시간적 여유 부재, 파트너와 거리 등을 대인적제약 요인 그리고 장비부재, 다른 일 때문, 시간적 여유 없음 등을 구조적제약 요인으로 구분하여 여가행동 전반을 검증하기도 하였다.¹¹²⁾

그리고 국내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여가제약 척도를 비판하고, 보편적 여가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24개 항목으로 여가제약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여가제약 요인으로는 난이도, 시설불편, 시간부족, 주변의식, 흥미부족, 인지부조화, 신체장애 등 7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¹¹³⁾

수영이라는 스포츠 여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가제약에 관해 연구한 경우 그 구성요인은 마음의 여유, 일상생활 방해, 바쁜 생활과 피곤함, 사치감, 열의 부족, 더 중요한 일 등의 내재적제약 요인, 파트너 부족, 파트너의 관심부족에 관한 대인적제약 요인 그리고 시설부족, 교통수단부족 및 불편, 시간부족, 프로그램 부족, 혼잡성, 종교활동의 중요성 등의 구조적제약 요인이었다.¹¹⁴⁾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여가제약 요인은 구조적 제약, 대인적제약, 개인내적제약으로 보기도 하였으며,¹¹⁵⁾ 기혼여성의 여가스포츠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연구에서는 난이도, 주변의식, 시간부족, 시설불편, 신체장애, 인지부조화 등 총 6개 제약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 중 한국 기혼 여성들의 스포츠 여가활동 제약요인으로는 시간부족, 난이도 요인이 가장 강한 제약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¹¹⁶⁾

111) A. Andronikidis, C.A. Vassiliadis, C. Priporas, & I. Kamenidou(2006). Examining Leisure Constraints for Ski Centre Visitors: Implications for Services Marketing, *Journal of Hospitality & Leisure Marketing*, 15(4), pp.69-86.

112) J. Hubbard & R. Mannell(2001). *op.cit.* pp.145-163.

113) 지현진·이철원(2003). 보편적 여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5), pp.441-449.

114) 정소연(2004). 『레저제약협상과정에 관한 구조분석: CEM과 PCR모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15) 이윤희·박미석(2006).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구조방정식 모형구축을 통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pp.11-30.

3)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측정항목

여가제약 측정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이용되었던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재적제약에는 수줍음, 건강, 안전, 자신감, 기술부족, 이전의 경험 등을 측정하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고, 대인적제약은 파트너 부재, 파트너의 시간적 여유 부재, 파트너와 거리 제약 등과 같은 측정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제약으로서 장비부재, 더 중요한 일 있음, 시간적 여유 없음, 정보 부족함,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함, 교통 불편함 등의 측정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제약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측정 항목들은 선행연구는 <표 2-11>에 제시한 12개의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측정된 항목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내재적제약 요인의 측정문항은 부끄러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칠까봐 두려워서, 기술이 부족해서, 흥미/관심이 없어서,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서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대인적제약 요인의 경우는 함께 참여할 파트너가 없어서, 파트너의 흥미부재, 파트너의 이해 부족해서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조적제약 요인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정보 및 홍보가 부족해서, 시설/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시설이 좋지 않아서, 혼잡해서 등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예비노년층이라는 대상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측정항목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타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측정변수로 넣었다. 예를 들면 ‘나이에 어울리지 않음’이라는 항목은 타 12개 연구 중 한 연구에서만 이용 되었지만 예비노년층이므로 자신감 결여 측면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어 측정항목으로 삽입하였다.

여가 제약의 유형은 기존 연구의 연구방법, 연구에 포함된 여가활동 및 여가제약 측정 항목의 수와 종류, 연구대상자, 자료의 분석방법에 따라 시간, 비용, 능력, 시설, 기회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그 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광범위한 여가제약 항목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여가제약 측정 항목은 <표 2-11>과 같다.

116) 지현진(2006). 기혼여성의 레저스포츠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3), pp.17-26.

<표 2-11> 여가제약 요인 추출

제약요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본연구
내재적 제약	부끄러워서/수줍어서	○					○				○			●
	건강이 좋지 않아서/체력부담		○	○	○	○		○			○		○	●
	피곤할 것 같아서			○	○	○	○	○				○		
	다칠까봐 두려워서	○			○			○			○			●
	안전을 고려해서					○			○		○	○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		○		○				
	자신이 없어서	○						○						
	전에도 좋아하지 않아서									○		○	○	
	기술이 부족해서 /서툴러서	○		○	○	○			○		○	○		●
	흥미/관심이 없어서			○	○	○		○			○	○	○	●
	재미없을 것 같아서												○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서									○				●
	이전의 경험이 좋지않아서									○				
신앙과 부합되지 않아서	○									○				
대인적 제약	함께 참여할 파트너가 없어서	○	○				○	○	○	○		○	○	●
	파트너가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아서				○				○					
	파트너가 시간이 없어서	○	○		○	○	○	○			○		○	
	파트너가 참여를 싫어해서/흥미부재				○	○		○	○		○	○	○	●
	파트너의 거리가 멀어서	○				○	○						○	
파트너의 이해 부족해서	○												●	
구조적 제약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				○			○		○	○		●
	참여비용이 부담되서		○	○						○		○		
	교통비가 비싸서		○	○		○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		○	○		○		○	○	○	●
	일을 해야 해서		○	○	○	○	○			○				
	시간이 적당하지 않아서				○			○					○	
	집 근처에 없어서/거리가 멀어서		○	○	○	○		○				○		
	정보 및 홍보가 부족해서		○	○		○			○			○	○	●
	시설/프로그램이 부족해서				○	○		○					○	●
	교통이 불편해서	○	○	○		○		○	○	○			○	●
	시설이 좋지 않아서	○	○	○	○						○		○	●
혼잡장비(옷 등)가 없어서			○			○		○						
혼잡해서/붐벼서	○	○	○						○				●	
참여방법을 몰라서	○	○										○		

자료: ①Raymore, Godbey, Crawford & von Eye(1993); ②Jackson & Witt(1994); ③Hultman(1995); ④ Carroll & Alexandris(1997); ⑤Nadirova & Jackson(2000); ⑥Hubbard & Mannell(2001); ⑦ Alexandris(2002); ⑧Pennington-Gray & Kerstetter(2002); ⑨황인옥(2004); ⑩지현진·이철원(2003); ⑪Nyaupane, Morais, & Graefe(2004); ⑫이훈(2005)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4.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협상

1)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협상 개념

여가제약의 단계적 모델에 대한 후속 연구로 여러 연구들에 의해 수정·보완되고 확장되면서 여가제약 협상모델(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model)¹¹⁷⁾로 발전하였다.¹¹⁸⁾ 여가참여 과정에서 여가제약의 세 가지 요인인 내재적제약, 대인적제약, 구조적제약은 연속적으로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동기와의 상호작용하여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여가제약 협상이론(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theory)’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간의 작용에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¹¹⁹⁾

여가제약 협상 영역은 여가제약의 새로운 영역으로, 여가행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가제약 요인과 여가동기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 되었고, 여가참여는 여가제약의 존재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가제약 협상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¹²⁰⁾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제약 협상에 관해 학자들이 정의한 것을 보면,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즐거움에 대한 제약 등을 감소시키거나 피할 수 있도록 이용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고,¹²¹⁾ 여가제약에도 불구하고 여가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지적인 전략 또는 행동적 전략을 사용하는 개인의 노력을 여가제약에 대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²²⁾ 뿐만 아니라 여가제약 협상을 유·무형의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여가활동에 참가하려는 노력으로 보고 있다.¹²³⁾

117) 협상은 외국저널에서 쓰고 있는 ‘negotiation’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타협’이나 ‘조정’ 등으로 학자마다 혼용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용의 흐름상 협상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협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18) T. Kay & G. Jackson(1991). *op.cit.* pp.301-313.; S.M. Shaw, A. Bonen, & J.F. McCabe(1991). *op.cit.* pp.286-300.; J. Hubbard & R. Mannell,(2001). *op.cit.* pp.146-163.; J.S. Son, A.J. Mowen, & D. Kerstetter.(2008). *op.cit.* pp.198-216.

119) D.W. Crawford, E.L. Jackson, & G. Godbey(1993). *op.cit.* pp.1-11.

120) J. Hubbard & R. Mannell(2001). *Ibid.* pp.146-163.; J.S. Son, A.J. Mowen, & D. Kerstetter(2008). *Ibid.* pp.198-216.

121) R.C. Mannell & D.A. Kleiber(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PA: Venture Publishing, pp.34-38.

122) A. Loucks-Atkinson & R.C. Mannell(2007). *op.cit.* pp.19-36.

본 연구에서는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협상은 예비노년층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여가제약의 주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되는 자원이나 전략으로 보고자 한다.

2)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협상 유형

현재 여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가제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여가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중단하지 않고 여가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참여와 비참여를 판가름한다는 것이다. 여가참여자들은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자들보다 여가참여에 대한 여가동기가 강하여 적극적으로 여가제약에 대하여 협상하였기 때문에 참여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보고 있다.¹²⁴⁾ 또 한편에서는 여가제약과 여가참여 사이에서 여가제약 협상이 제약과 참여 사이에 매개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¹²⁵⁾

이러한 관심들은 토대로 연구되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여가제약 협상의 다양한 유형들을 볼 수 있으며, 여가제약 협상과정을 통해 여가제약이 극복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가제약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였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여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가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있다. 여가제약이 발생하면 기회인식 협상, 기술습득, 여가참여 빈도와 시간대 변경, 일상생활 일부 변경 등의 방법들을 이용하기도 하고,¹²⁶⁾ 시간관리 협상, 기술습득 협상, 대인관계 협상, 금전 협상, 신체건강회복 협상 등으로 분류하여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과정을 검증했다.¹²⁷⁾ 여가제약 협상은 Hubbard et al.(2001)에 와서 좀 더 발전된

123) 김경식·황선환·원도연(2008). 여가제약협상 전략 척도의 개발과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47(3), pp.365-376.

124) E.L. Jackson, D.W. Crawford & G. Godbey(1993) *op.cit.* pp.1-11.; J. Hubbard & R. Mannell(2001). *op.cit.* pp.145-163.; J.S. Son, A.J. Mowen, & D. Kerstetter(2008). *op.cit.* pp.198-216.; 김성희·이철원(2003). 전개논문, pp.391-400.

125) 최성범(2009). 전개논문, pp.145-156.

126) T. Kay & G. Jackson(1991). *op.cit.* pp.301-313.

127) E.L. Jackson & V.C. Rucks(1995).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High and High-Schoo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 pp.85-105.

모델구축에 성공하였는데, 그 유형은 시간관리 협상, 기술습득 협상, 대인관계 협상, 금전 협상 등이다.¹²⁸⁾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제약 협상에 관한 연구를 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가제약을 여가변화 협상, 금전 협상, 대인 관계 협상, 고통감소 협상, 기술습득 협상, 시간관리 협상 유형을 가지고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⁹⁾ 국립공원을 방문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제약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연구한 경우는 여가참여시 여가제약에 부딪히면 시간관리 협상, 기술 습득 협상, 금전 협상 그리고 대인 협상으로 여가제약 협상을 통해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⁰⁾

국내에서의 여가제약 협상 유형은 여가제약 협상에 관한 척도 개발 과정에서 분류하는 것 이외에 대부분은 스포츠 여가활동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가제약 협상 유형들을 보면, 여가제약 협상 전략 척도 개발과정에서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관리 노력,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강원지역에서 여가스포츠에 참가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여가제약에 대한 협상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한 경우는 여가 동반자탐색 협상, 여가 열망변화 협상, 여가 활동비 마련 협상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¹⁾

또 골프, 스키, 사이클링, 스노우보드 등 강도 있는 스포츠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을 즐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가제약 협상 유형을 분류한 경우 동반자탐색 협상, 에너지충전 협상, 열망변화 협상, 시간관리 협상 그리고 기술습득 협상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²⁾ 일반 남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여가제약 협상 유형은 윈윈(win-win)협상, 기술 협상, 윈루즈(win-lose) 협상 그리고 기회 협상으로 여가제약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¹³³⁾

현재 국내에서의 여가제약 협상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고, 체계적인 절차를

128) J. Hubbard & R. Mannell(2001). *op.cit.* pp.145-163.

129) A. Loucks-Atkinson & R.C. Mannell(2007). *op.cit.* pp.19-36.

130) J.S. Son, A.J. Mowen, & D. Kerstetter(2008). *op.cit.* pp.198-216.

131) 최성범(2009). 전개논문, pp.145-146.

132) 김경식·진은희·구경자(2009). 여가동기가 여가제약 극복노력 및 레저스포츠 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레크레이션학회지』, 33(3), pp.153-162.

133) 최성훈(2010).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직장인들의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협상 전략분석, 『체육과학연구』, 21(1), pp.997-1010.

통하여 일반화된 척도 개발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국외 선행연구는 비교적 발전된 여가제약 협상 측정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선행연구 대부분은 여가활동 중 스키, 옥외 레크리에이션, 운동 등으로 여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여가제약 협상 측정척도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가제약 협상을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무리여서 대상이나 여가활동 유형이 세분화되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위의 여가제약 협상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표 2-12>과 같다.

<표 2-12> 여가제약 협상 유형

연구자	여가제약 협상 유형
Scott(1991)	- 정보 획득 - 스케줄 협상 - 개인의 기술개발
Kay et al.(1991)	- 기회의 인식 - 기술 습득 - 여가참여의 빈도와 시간대 협상 - 생활의 일부 변경
Jackson et al.(1995)	- 시간관리 - 기술 습득 - 대인관계 변화 - 금전적 개선, - 신체 치료 - 여가욕구의 변화
Samdahl et al.(1997)	- 과업일정 변경 - 일상생활 변경
Hubbard et al.(2001)	- 시간관리 - 기술습득 - 인간관계 개선 협상 - 금전에 대한 협상
Little(2002)	- 우선순위를 정함 - 절충안 모색 - 다른 모험을 찾음
Louks-Atkinson et al.(2007)	- 여가욕구 변화 - 인간관계 개선 협상 - 기술 습득 - 금전에 대한 협상 - 고통에 직면에 대한 협상 - 시간관리
Son et al.(2008)	- 시간관리 - 대인적 관계 협상 - 기술 습득 - 금전에 대한 협상
김경식 외(2008)	-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관리 노력 -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 여가활동 기술습득 노력 -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
최성범(2009)	-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 - 여가활동비 마련 노력
최성훈(2010)	- 윈윈(win-win) 협상 - 윈루즈(win-lose) 협상 - 기술 협상 - 기회 협상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3) 예비노년층의 여가제약 협상 측정항목

예비노년층의 측정척도에 대한 여가제약 협상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도출하여 이용하고자 한다. 국외의 여가제약 협상 연구는 Jackson et al.(1993), Hubbard et al.(2001), Jackson et al.(1995), Louks-Atkinson et al.(2007), Son et al.(2008)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한우진(2005), 김경식 외(2008), 김연경(2008), 최성범(2009), 최성훈(2010) 등이 있다. 측정항목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제외하였고, 선행연구는 <표 2-13>에 제시한 8개의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측정된 항목 선정하였다.

요인명은 시간관리 협상, 기술습득 협상, 대인관계 협상, 금전 협상으로 분류하였고, 시간관리 협상에서 측정되는 항목은 일찍 일어난다, 교통체증피해 새벽과 밤늦게 이동한다, 스케줄을 협상한다, 잠을 줄인다,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기술습득 협상은 그 여가활동과 관련된 수업을 받는다, 연습을 더 한다, 인터넷 검색, 책 등의 자료를 찾아 본다로 측정하였다. 대인관계 협상은 동호회에 가입한다, 평소에 식구들에게 충실한다,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고 자주 전화한다는 측정항목을 넣었으며, 금전 협상의 항목으로는 돈을 따로 모은다, 비용부담 크면 참여횟수 줄인다, 쿠폰 등의 각종 할인혜택을 이용한다는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예비노년층이라는 대상을 고려했을 때, 이해가 힘들고 응답하기 어려운 항목은 본 설문에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예비노년층에게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항목인 경우는 타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측정변수로 넣었다. 예를 들면 ‘교통체증피해 새벽과 밤늦게 이동 한다’라는 항목은 7개 연구 중 하나의 연구에서만 이용 되었다. 그러나 예비노년층에게 시간에 대한 조정은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되므로 시간 협상이라는 측면은 예비노년층에게 중요한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있어 측정항목으로 삽입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여가계약 협상 요인 추출

여가계약 협상요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본연구
시간 관리	일찍 일어난다		○	○		○	○		●
	교통체증피해 새벽과 밤 늦게 이동한다.							○	●
	다른 여가시간을 줄여 레포츠 활동을 한다.				○		○		
	점심시간에 여가활동을 한다.		○		○				
	가능한 시간이 나는 대로 여가생활을 한다.		○					○	
	이동시간에 책을 읽는 등 다른 일을 한다.			○	○	○			
	일과표를 짠다.		○					○	
	스케줄을 협상한다.		○	○	○	○	○	○	●
	월차나 휴가를 이용한다.			○	○	○			
	잠을 줄인다.	○						○	●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	○		○	○	○			●	
기술 습득	새로운 여가활동을 배운다		○					○	
	그 여가활동과 관련된 수업을 받는다.			○		○	○	○	●
	잘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					○	
	연습을 더 한다.		○				○		●
	서툴다고 해서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	○	○			
인터넷 검색, 책 등의 자료를 찾아본다.				○				●	
대인 관계	나와 관심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		○	○		○	○	○	
	동호회에 가입한다.						○		●
	평소에 식구들에게 충실한다.						○		●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고 자주 전화한다.		○	○		○	○		●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		○		○				
금 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선에서 여가활동을 한다.							○	
	예산계획을 세운다.			○	○	○			
	돈을 따로 모은다.	○		○		○		○	●
	레포츠 활동을 줄인다.	○							
	대중교통,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				○		
	비용부담 크면 참여횟수 줄인다	○	○				○		●
쿠폰 등의 각종 할인혜택을 이용한다.						○		●	

출처: ①Kay & Jackson(1991) ②Jackson, E.L., & Rucks, V. C.(1995). ③Hubbard & Mannell(2001) ④Louks-Atkinson & Mannell(2007) ⑤Son, Mowen, & Kerstetter (2008) ⑥ 정소연(2004) ⑦ 김경식·황선환·원도연(2008) ⑧본 연구

5. 선행연구의 검토

1)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와 참여 간의 관계

여가동기는 여가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여가동기가 사람들의 여가행동 참여방식을 설명해주고 여가참여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여가동기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들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인에게 주는 혜택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현장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¹³⁴⁾

여가활동 자체가 개인의 욕구와 충족 과정을 포함하는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행동이기 때문에 여가 연구에서는 여가행동과 다른 행동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동기요인은 강조 되어져왔다.¹³⁵⁾ 따라서 행동을 시작하고 그 방향성을 유도하며 지속시키는 여가동기와 여가행동의 지속 및 참여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여가동기는 여가제약을 받는 상황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가제약 협상 전략과 여가참여과정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여가동기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관광활동 참여동기, 스포츠 참여동기, 축제나 이벤트 참여동기 등에 집중되어 활발하게 연구되어져 오고 있는데, 사람들의 여가활동이 관광축제와 이벤트에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동기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여가동기 연구의 근간을 이루며, 이를 바탕으로 여가동기 부분에서도 꾸준한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Iso-Ahola(1989)¹³⁶⁾의 추구(seeking)와 회피(escape)라는 두 가지 차원을 근거로 사회·심리학적 관광동기이론 개발된 것을 기초로 하여 축제이벤트 참여동기를 일상탈출, 흥분 및 스릴, 사교성, 가족의 화합 등의 요인으로 분류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들 요인들은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축제에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하였다.¹³⁷⁾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음악축제 참여자들은 발견동기, 음악동기,

134) M.J. Manfred, B.L. Driver, & M.A. Tarrant(1996).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A Meta-Analysis of the Recreation Experience Preference Scal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3), pp.188-213.

135) 성영신·고동우·정준호(1996). 여가경험의 심리적 본질: 재미란 무엇인가?, 『소비자학연구』, 7(2), pp.35-57.; Y. Mannell & D.A. Kleiber(1997). *op.cit.* pp.34-38.

136) S.E. Iso-Ahola(1989). *op.cit.* p.259.

137) M. Uysal, L. Gahan, & B. Martin(1993). An Examination of Event Motivations: A Case Study,

즐거움동기 등의 동기 요인이 지속적으로 여가에 참여하고자하는 여가 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축제 참여에 대한 동기 요인을 추출한 경우도 건강증진동기 요인 및 삶의 질적향상동기 요인이라는 두 동기요인이 지속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³⁸⁾ 타이완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관광활동 참여 동기 요인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자신감동기, 지적추구동기, 휴식동기, 사회적동기, 자기 과시적동기의 5개요인이 추출되었고, 동기 요인들 중 휴식적동기 요인과 사회적동기 요인이 다른 동기 요인들보다 관광활동참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⁹⁾

여가동기는 여가행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동기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은 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 과정에서의 여가동기의 역할에 따라 참여와 비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¹⁴⁰⁾를 보더라도 여가동기와 여가참여 사이에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여가동기와 여가참여 사이의 연구는 꾸준하고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2)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 제약 및 참여 간의 관계

여가동기 연구는 행동의 직접적 추동이 되는 동기가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여가제약이 여가동기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는 것을 토대로 시작되었고, 여가동기와 여가제약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¹⁴¹⁾ 반면, 여가동기가 선행되어 여가제약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검증하기도 하여,¹⁴²⁾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는 상관분석과 단일변량 분석으로는 여가동기와 여가제약간의 인과관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가동기가 여가제약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제약이 여가동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1(1), pp.5-10.

138) 정승용·채재성(1999). 생활체육참가자의 스포츠참여동기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1, pp.137-146.

139) S.C. Jang & C.E. Wu(2006). *op.cit.* pp.306-316.

140) 이인재·이훈(2006). 선행 여가행동과 관련된 제약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학연구』, 30(4), pp.339-357.

141) G.F. Loiser, P.E. Bourque, & R.J. Ballerand(1993). A Motivational Model of Leisur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2), pp.153-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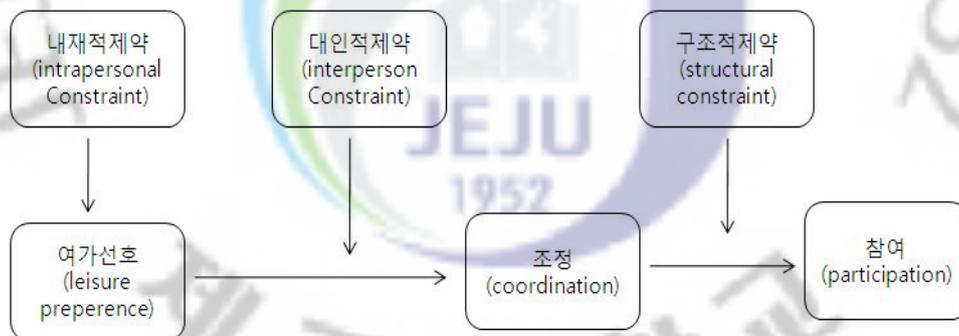
142) B. Carroll & K. Alexandris(1997). *op.cit.* pp.279-299.

기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분명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아직 까지도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제약은 비참여의 원인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참여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킬 수 있고 잠재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¹⁴³⁾ 과거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는 대상, 변인, 분석단위, 분석과정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여 여가제약에 대한 일반화를 방해해 왔지만, 최근 들어 여가제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가제약은 각 단계가 연속적으로 직면해 있어서 단계적으로 극복해야만 여가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내재적제약이 극복될 때라야만 다음 단계인 대인적제약에 직면하게 되고, 대인적제약이 극복될 때 구조적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불참하게 되는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그림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여가제약의 단계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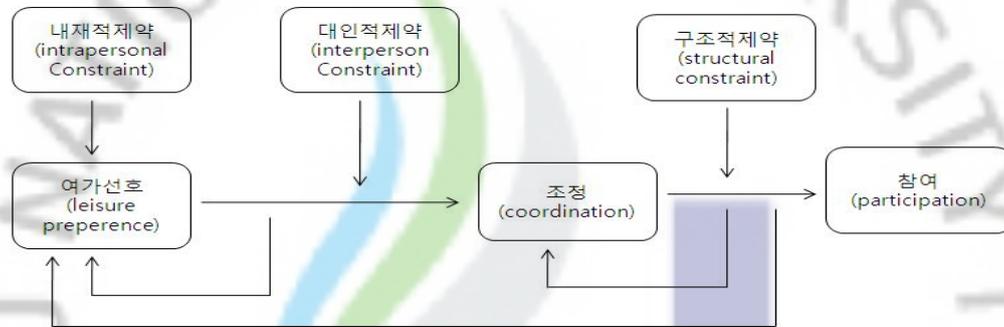
자료: D.W. Crawford & G. Godbey(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3), pp.122.

여가제약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구조적인 형태로부터 오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지속적인 여가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제약들

143) 김유일·강석희(2000). 여가활동참여에 있어서 제약유형의 위계적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학회지』, 28(1), pp.29-36.

이 참여 또는 비참여의 관점에서 검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은 여가제약의 대안적 관점에서 여가제약 협상을 통하여 여가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여가제약 협상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여가제약 협상과 여가제약의 다른 요인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거, 또한 여가제약과 여가동기 간의 균형제안(balance proposition) 모델을 제안하였다. 우선, 여가제약의 다른 형태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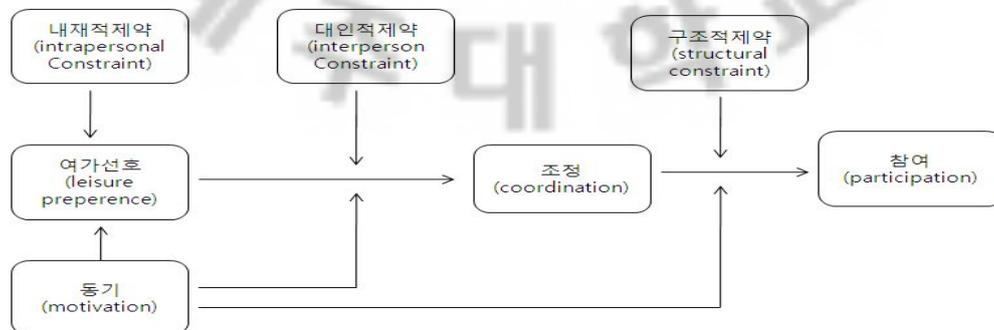
<그림 2-5> 여가제약 유형간의 상호작용



자료: D.W. Crawford, E.L. Jackson, & G. Godbey.(1993). *op.cit.* p.7.

여가제약과 여가동기간의 균형제안을 도식화 하면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여가제약 여가동기간의 균형제안



자료: D.W. Crawford, E.L. Jackson, & G. Godbey(1993). *op.cit.* p.8.

여가제약 패러다임의 타당성과 가치에 대한 중요한 관심과 비평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전제와는 달리 여가제약이 항상 여가참여를 막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¹⁴⁴⁾ 특히, 여가참여는 여가제약에 의존적이고 제약의 부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한 극복이라고 진술하면서 그러한 극복은 참여를 없애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게 한다고 강조한다.¹⁴⁵⁾

그 동안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그리고 여가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 대상으로 여가제약, 여가동기 그리고 스포츠 여가참여와의 영향관계,¹⁴⁶⁾ 생태학적관점에서 본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와의 관계,¹⁴⁷⁾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여가제약이 여가동기와 여가참여와의 관계¹⁴⁸⁾에서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그리고 여가참여 간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영향관계는 사람들이 가지는 여가동기와 여가제약이 참여에 영향력 있게 작용한다는 것을 검증 시켜준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여가동기, 제약, 협상, 참여 및 지속의도 간의 관계

여가동기, 여가제약 그리고 여가제약 협상과 여가참여에 대한 연구는 각 개념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찾아보는 연구를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관계는 여가제약 협상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가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있다. 우선, 여가동기가 여가제약, 협상,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연구들을 보면, 제약을 동기의 선행 변수로 보고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에 대해 여가제약 차원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여가제약은 지식부족, 관심부족, 심리적제약, 시간부족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여가제약과 동기와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그 내용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2-7>과 같다. 즉, 여가제약은 여가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동기는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검증한 것이다.¹⁴⁹⁾

144) J. Hubbard & R. Mannell(2001). *op.cit.* pp.145-163.

145) E.L. Jackson, D.W. Crawford, & G. Godbey(1993). *op.cit.* pp.1-11

146) 임영삼(2008). 축구동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서 여가제약요인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 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2(3), pp.97-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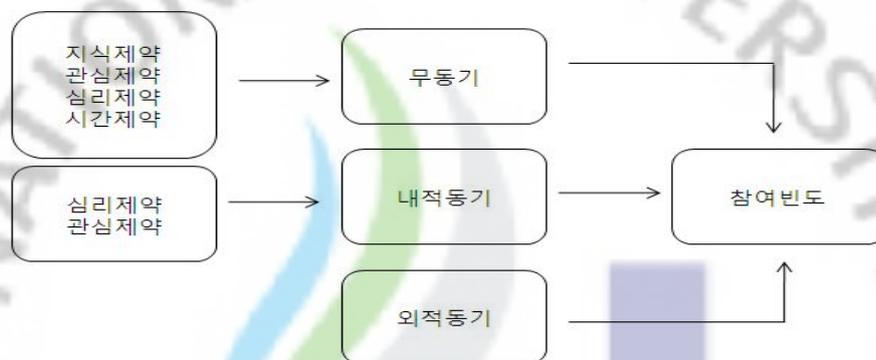
147) 이윤희·박미석(2006). 전개논문, pp.11-30.

148) 정우진·최성범(2008).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여가제약이 여가동기와 여가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2(3), pp.133-142.

149) K. Alexandris, G. Tosorbatzoudis, & G. Grouios(2002). Perceive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s

그리고 이러한 여가동기의 역할은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여가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여가제약 협상의 긍정적인 면을 통하여 여가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제약 협상과정을 지지하는 잠재적 변수일 뿐 아니라 여가참여의 중요한 중재적 변수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¹⁵⁰⁾

<그림 2-7> 여가제약과 동기, 참여 빈도의 관계성



자료: K. Alexandris, G. Tosorbatzoudis, & G. Grouios(2002). Perceive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s Participation: Investigating Their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3), pp.233-252.

국외의 연구에서 여가제약 협상과정에서 동기의 역할의 중요성을 검증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Jackson et al.(1993)은 균형이론(balance proposition)을 바탕으로 협상이론을 제시하면서 동기의 역할 강조하였고, Carroll et al.(1997)은 동기 부여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여가 참여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하면서 동기의 역할 강조하였다. 그리고 Hubbard et al.(2001)은 구방정식 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제약효과 완화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여가동기가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협상의 긍정적인 면을 통해 참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증명해 보였다.

Hubbard et al.(2001)에 의해 개발된 여가제약 협상과정모형을 이용하여 동기의

Participation: Investigating Their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3), pp.233-252.

150) J. Hubbard & R.C. Mannell(2001). *op.cit.* pp.145-163.; J.S. Son, A.J. Mowen, & D. Kerstetter(2008). *op.cit.* pp.198-216.; 정소연(2004). 전계논문.; 한현숙(2008). 전계논문.; 최성범(2009). 전계논문. pp.145-156.

효과를 검증한 Son et al.(2008)은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동기를 강화하고 여가참여에 영향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표 2-14> 여가제약 협상에서 동기의 역할

연구자	내 용
Jackson et al.(1993)	- 균형이론(balance proposition)을 바탕으로 협상이론을 제시하면서 동기의 역할 강조
Carroll et al.(1997)	- 동기부여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여가 참여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하면서 동기의 역할 강조
Hubbard et al.(2001)	-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제약효과완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여가동기가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협상의 긍정적인 면을 통해 참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증명함
Son et al.(2008)	- Hubbard & Mannell (2001)에 의해 개발된 여가제약 협상과정모형을 이용하여 동기의 효과를 검증함 - 여가제약 협상은 동기를 강화하고 여가 참여에 영향 줌
한현숙(2008)	- 문화이벤트 동기요인은 문화이벤트 제약에 대한 협상요인에는 정(+)의 영향 관계에 있음을 검증함
최성범(2009)	- Hubbard & Mannell (2001)에 의해 개발된 여가제약 협상과정모형 지지함 - 여가동기는 여가협상과 여가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 검증
최성훈(2010)	-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내적동기 요인은 외적 동기 요인보다 여가 제약 협상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여가제약 협상이론을 개념화하는 과정에 여가동기 요인의 추가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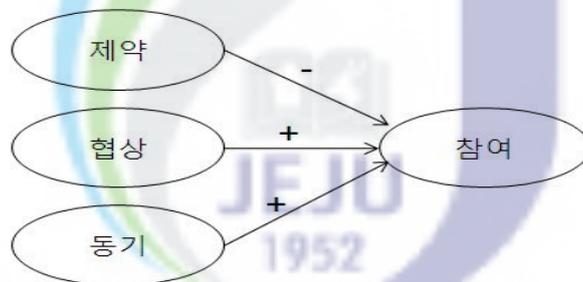
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국내에서는 한현숙(2008)이 문화이벤트 동기요인은 문화이벤트 제약에 대한 협상요인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 있음을 검증하였고, 최성범(2009)은 Hubbard et al.(2001)에 의해 개발된 여가제약 협상모형을 지지하면서 여가동기는 여가제약 협상과 여가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내적동기 요인은 외적동기 요인보다 여가제약 협상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고, 여가제약 협상이론을 개념화하는 과정에 여가동기 요인의 추가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고 하였다.¹⁵¹⁾ 이상의 내용은 <표 2-14>와 같다.

여가동기, 여가제약 그리고 여가제약 협상과 여가참여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구조관계가 정립되는 것을 보고자 한 것은 최근의 연구경향이다. 가장 먼저 이들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보고, 여가제약 협상에 관한 네 개 모델로 발전시켰다.¹⁵²⁾ 즉, 독립모델(independence model), 협상-완충모델(negotiation-buffer model), 제약효과 완화모델(constraint-effects-mitigation model), 인지된 제약감소 모델(perceived-constraint-reduction model)로서 이 모델들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모델은 여가제약, 여가동기 그리고 여가제약 협상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독립적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여가제약은 여가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협상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참여의 정도는 이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서 예측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 여가제약 협상의 독립모델



자료: J.Hubbard & R.C. Mannell(2001). Testing Competing Model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gr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 23, p.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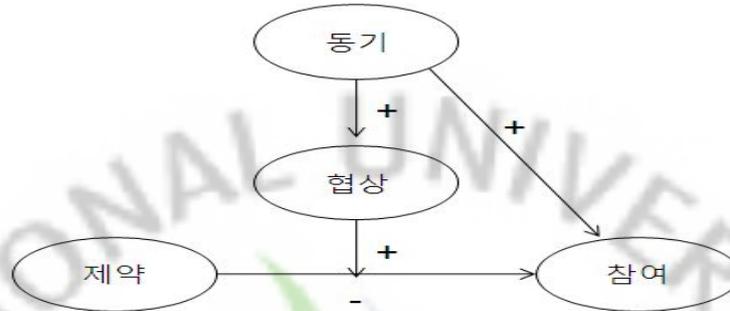
협상-완충모델에서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참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가제약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며,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제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가제약 협상 전략들은 여가참여와 관계없지만 여가제약이 일어나면 여가제약 협상전략은 여가제약의 부정적인 면을 감소시켜준다.

151) 최성훈(2010). 전제논문, pp.997-1010

152) J. Hubbard & R.C. Mannell(2001). *op.cit.* pp.145-163.

이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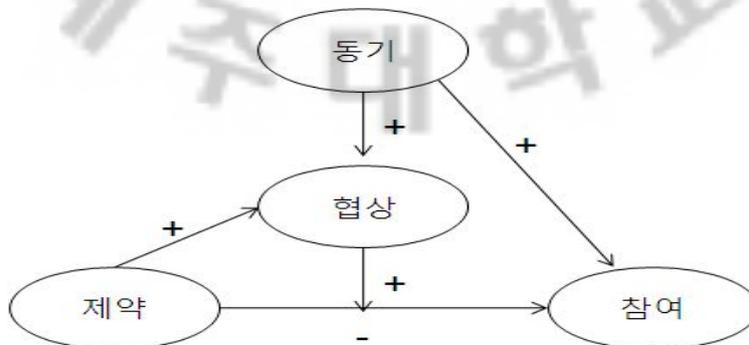
<그림 2-9> 여가제약 협상의 협상-완충모델



자료: J. Hubbard & R.C. Mannell(2001). *op.cit.* p.148.

제약효과 완화모델은 여가제약은 여전히 여가참여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며, 여가제약이 발생하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세운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모델로서 여가제약 협상이 이루어지면 여가제약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어 간접적으로 여가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여가동기가 여가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여가제약 협상의 긍정적인 면을 통하여 여가참여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0> 여가제약 협상의 제약효과 완화모델



자료: J. Hubbard & R.C. Mannell(2001). *op.cit.* p.148.

인식된 제약감소모델은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가제약 협상을 통하여 스스로가 여가제약 협상과 여가제약간의 부정적인 경로를 거치므로 여가제약을 적게 인식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 졌다. 여가동기는 두 경로를 통해 참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동기→협상→참여 경로는 제약완화 모델과 유사하다. 이 모델의 가장 기본 모델이 된 연구는 Carroll et al.(1997)의 연구로서 동기→협상→제약→참여 경로는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그리고 여가제약과 여가참여 사이의 부정적 상호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림 2-11> 여가제약 협상의 인식된 제약감소모델



자료: J. Hubbard & R.C. Mannell(2001). *op.cit.* p.148.

한편, 여가제약에 대한 협상 요인이 여가동기와 여가참여 지속의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가동기 요인을 내·외적동기로 구분하고 이들 여가동기가 여가제약 협상 요인을 통해 여가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¹⁵³⁾ 내적동기는 지식, 정보, 시간관리, 대인관계 조정 등의 협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외적동기는 지식, 생활방식 조정 등의 협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가제약 협상 요인 중 지식, 시간관리 등 2개의 협상 요인이 여가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내용을 도식화 하면

153) K. Alexandris, C. Kouthouris, & G. Girgolas(2007). Investing the Relationships among Motivation, Negotiation, and Alpine Skiing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4), pp.648-667.

<그림 2-12>와 같다.

<그림 2-12> 여가제약 협상의 동기와 여가 지속의도 간 매개역할 관계



자료: K. Alexandris, C. Kouthouris, & G. Girgolas(2007). Investing the Relationships among Motivation, Negotiation, and Alpine Skiing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4), p.661.

여가참여와 여가 지속의도는 여가제약의 존재 유무보다 여가제약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가제약 협상에 의해 여가참여가 결정되면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사람들은 여가제약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해당 제약요인에 대해 저항하거나 자신의 여건을 조정함으로써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¹⁵⁴⁾

최근 연구들은 위의 독립적인 관계를 검증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그리고 여가참여라는 전체 변수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 관계를 검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 내용들은 보면 다음과 같다.

Loucks-Atkinson et al.(2007)은 협상효능감(negotiation efficacy)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여가스포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참여에 대한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들 구조관계는 Hubbard et al.(2001)의 여가제약 완화 모형을 지지하며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제약을 완화시켜주고 여가

154) 황선환·서희진(2008). 전계논문, pp.298-307.

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최성범(2009)은 Loucks-Atkinson et al.(2007)의 모델을 지지하면서 여가제약은 여가참여에 부정적인 영향관계에 있고, 여가제약 협상에는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여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제약과 여가참여 사이의 방해 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¹⁵⁵⁾ 이 연구 결과는 여가동기가 여가제약 협상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여가참여를 더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면서 본 연구 결과에서의 내용처럼 여가제약 협상이 참여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검증결과를 뒷받침해 준 연구이다. 즉, 대다수의 연구가 여가동기의 역할 강조해왔던 반면에 여가제약 협상의 매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수행된 여가제약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그 대상이 중·고교 농구선수들, 레크리에이션 관련 직장인들, 신체장애 여성들, 그리고 섬유근육통 환자들 대상 등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여가활동 자체도 스키, 옥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등으로 한정적이어서 대상이나 종류가 제한적인 것은 한계점으로 보인다.

국내에서의 여가제약 협상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체육학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체육학 분야에서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여가활동 유형은 스포츠 분야라는 한 유형으로 정해져 그 유형에 참여하는 대상에 관한 여가제약 협상만을 다루고 있고, 국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연구가 여가동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여가참여와의 관계를 보고 있다. 따라서 여가유형을 다양화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고, 여가제약 협상의 역할에 주목하고 여가제약과 참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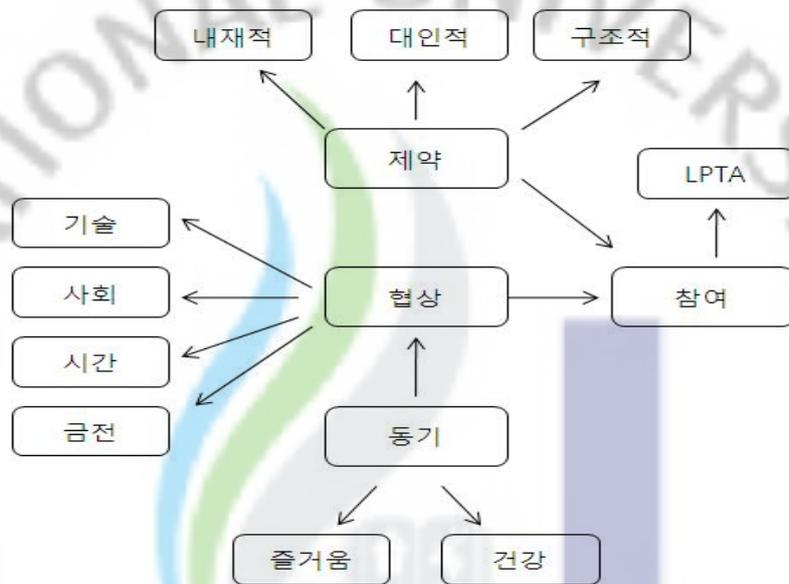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선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여가활동을 세분화하여 측정하였고, 여가동기의 역할보다는 여가제약 협상 자체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으며,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이들 변수들과의 전체적인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Son et al.(2008)의 연구는 이러한 비판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므로 본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즉, Son et al.(2008)의 연구는 제약-협상 이원 채널 모델로서 참여에 대한 동기의 간접 효과와 협상의 직접 효과, 제약의 직접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모델로 여가동기, 여가제약 그리고 협상 및 참여까지 전체적인 모형이 적합한

155) A. Loucks-Atkinson, & R. Mannell(2007). *op.cit.* pp.19-36.

구조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려고 시도한 연구논문이다. 그러나 단지 Hubbard et al.(2001)의 제약협상 과정모델에서 동기역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만을 강화하였고, 제약과 협상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보면서 그 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13> Son et al.(2008)의 여가동기, 제약, 협상 그리고 참여 간 구조모형



자료: J.S. Son, A.J. Mowen, & D.L. Kerstetter(2008). Testing Alternativ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Model: An Extension of Hubbard and Mannell's Study, *Leisure Science*, 30, p.210.

이에 본 연구는 Son et al.(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 모델에서 여가제약 협상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그리고 여가참여간의 관계를 전체적인 구조관계로 확인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 보이는 문제점이 여가활동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여가활동을 동적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연령대에 있어서도 이들 연구는 매우 포괄적인 연령층이었다면, 본 연구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대를 세분화한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여가제약 협상의 긍정적 매개요인의 역할로 인해 여가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노년까지 계속 하고자하는 여가 지속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여가 지속의도의 변수를 삽입하여 전체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여가제약은 여가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서는 여가제약 협상이 매개 역할을 강하게 함으로써 여가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검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가제약을 감소시키고 여가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동기, 여가제약이 여가참여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여가제약 협상의 역할을 보고, 여가참여가 미래의 여가 지속의도와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여가연구에서 여가제약은 여가참여를 방해하고 제약이 발생할 경우 여가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¹⁵⁶⁾ 하지만 여가제약이 발생한다하더라도 여가제약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제약을 극복하고 여가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라는 연구가 실증적으로 검증되기 시작하였다.¹⁵⁷⁾

특히,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제약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또한 협상의 강도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동기도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제약과 그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협상의지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그리고 여가참여 사이에서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하지만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참여에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가 Son et al.(2008)의 연구와 다른 점은 여가동기와 여가제약이 여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가제약 협상을 매개요인으로 두고 있다는 점과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을 동적여가활동 참여집단과 정적여가활동 참여집단으로 유형별로 나누어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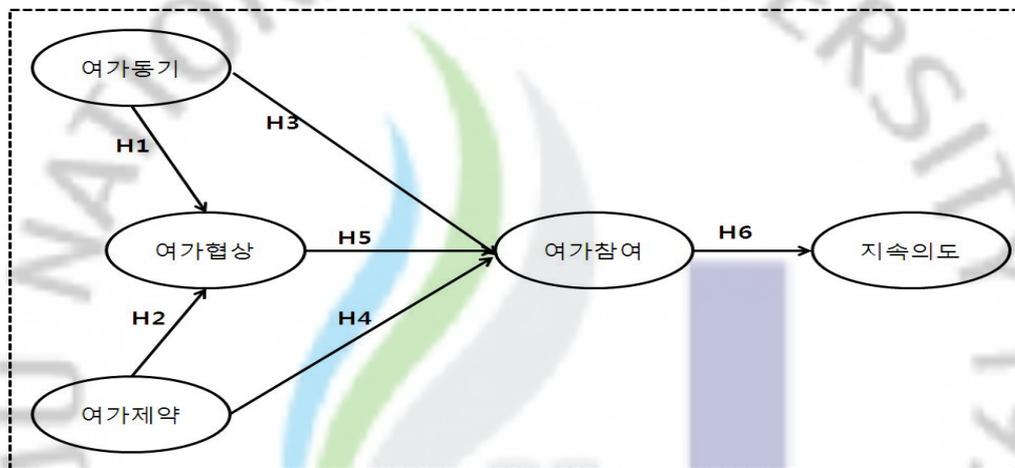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는 동기의 역할을 강조하여서 여가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가의

156) E.L. Jackson(1988). *op.cit.*; A.L. Raymore, G.C. Godbey, & D.W. Cawford(1994). Self-Esteem,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heir Relation to Perception of Constraint on leisure Amory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 pp.99-118.; B. Caroll & K. Alexandris(1997). *op.cit* pp.279-297.; 이유리·박미석(2006). 전개논문. pp.11-30.; 정호권(2006). 『레저스포츠활동의 제약요인과 참여동기 연구-골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7) J. Hubbard & R.C. Mannell(2001). *op.cit.* pp.145-163.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여가제약 협상과 여가제약을 독립적인 관계로만 인식하여 그 관계를 상세히 검증하는 것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활동 유형별로 참여에 대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될 것이며, 여가참여는 향후 여가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가 지속의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도출된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동기, 제약, 협상, 참여, 그리고 지속의도가 예비노년층이라는 특정 대상에서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보이는지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I : 여가동기는 여가제약 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II :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III : 여가동기가 여가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IV : 여가제약이 여가참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V :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VI : 여가참여가 여가 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여가활동(leisure activities)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예비노년층이므로 노후를 생각하는 여가의 정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여가란 자유로운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이며, 행복과 자아실현을 경험하는 것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여가동기(leisure motivation)

일반적으로 여가동기는 여가행동을 하게끔 추동하는 것이 여가동기이며, 이를 여가 경험에 앞서서 개인이 선택하고 참여하게 되는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가동기는 여가 행동을 이끄는 심리적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여가동기가 사람들의 여가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방식을 설명해주고 여가 참여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3) 예비노년층(pre-elder people)

예비노년층은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대의 장·노년에 해당되는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연령계층으로서 기본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어 있고, 과거의 노년층과는 다르게 고학력 소유자들이 많다. 또한 시간적·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층으로서 여가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대상층을 말한다.

(4)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

여가제약은 여가참여와 여가 즐거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특정 여가활동을 기피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이 인식하거나 경험한 요인이다. 여가제약은 특별한 행동에 참가하려고 하나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의 총체로서

여가활동에 개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참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5) 여가제약 협상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여가제약이 존재함에도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여가활동에 참가하려는 노력으로서 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나 방해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다.

(6) 여가참여(leisure participation)

연구대상인 예비노년층에게 여가활동 참여빈도, 시간투자, 금전 투자 그리고 주변에 추천의도까지를 제시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여 응답자의 동의수준을 측정하였다.

(7) 여가활동 지속의도(leisure intention)

여가활동 지속의도란 여가활동 유형 중 여가활동에 직접 참가하고 그 활동을 정기적(regular)으로 행하는 것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집착 또는 지속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대상이 예비노년층임을 감안하고 여기서의 지속적인 여가참여는 노년기에 접어든 후에도 계속 할 의지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연구의 조사 설계

1) 설문지 구성과 자료의 측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연구의 목적과 사용처를 설명하고, 여가활동의 개념과 여가제약 협상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표 3-1> 최종 설문지의 구성

구성내용	문항 수	설문지 번호	척도
◆ 평소 참여하는 여가활동유형 : 1순위, 2순위	1	-	예시번호기입
◆ 여가활동 참여횟수	1	-	비율척도
I. 여가활동을 하는 동기	14	I. 1-14	리커트식 5점 척도
II. 여가활동 제약 요인	15	II. 1-24.	리커트식 5점 척도
III. 여가제약에 대한 극복을 위한 노력	13	III. 1-20	리커트식 5점 척도
IV. 여가활동 참여	4	IV. 1-4	리커트식 5점 척도
V. 여가활동 지속의도	4	V. 1-4	리커트식 5점 척도
VI. 인구통계적 특성	8	-	명목척도/비율척도

첫 번째 문항은 응답자가 평소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에 관한 질문으로서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1순위에 기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 순위인 2순위에 기입하도록 질문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은 번호로 예시하였다. 그리고 여가활동 참여횟수와 관련해서는 비율척도를 이용한 1개 문항, 여가동기와

관련해서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14개 문항을 질문 하였고, 여가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한 15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여가제약에 대한 극복 노력에 관련해서는 13개 문항을, 여가참여에 관한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한 4개 문항을 질문하였고, 여가 지속의도에 관련해서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한 4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해서 예비노년층의 특성을 묻는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설문지 총 문항은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상으로는 8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과학적 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조사 설계에 의해서 수집하였다.

첫째, 설문지 대상은 제주도내 서귀포시와 제주시내의 예비노년층에 해당되는 55-65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대상지역의 인구 비율에 맞추었다. 대상은 편의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표본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순위를 묻는 것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대상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연령층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시 직접 설문응답하기 어려울 때에는 설문조사자가 읽어주고 체크해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에 임하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설문 조사 문항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2010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주시내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방법은 본 조사에서 사용될 방법을 미리 구상하여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조사원은 여러 번의 설문조사의 경험이 있는 대학원의 박사과정 원생, 학부생 3명과 함께 직접 조사하였다. 이는 설문대상이 비교적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애로점을 발견하여 의견을 좀 더 정확히 나누고 대비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었다.

예비조사 설문은 총 100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표본 2부를 제외한 9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은 SPSS17.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특이한 문항이 발견되지 않아 작성된 설문지를 본 조사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설문지를 읽어 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생겨서 곁에 서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본 조사에서 조사원들 교육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개별 구성개념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7.0 윈도우 프로그램과 AMO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념 간 구조모델을 확인하였다.

VI. 분석 결과

1. 표본의 구성과 특성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예비노년층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에 인구비례에 맞춰 편의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총 500부 중 불성실하거나, 예비노년층의 연령대에서 벗어난 138부를 제외한 362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특성	항목	빈도	비율	특성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99	55.0	배우자	있다	338	93.4
	여성	163	45.0		없다	24	6.6
연령	55세 이상-60세 미만	223	61.6	건강상태	매우 건강	81	22.4
	60세 이상-65세 이하	139	38.4		거의 건강	135	37.3
학력	초등졸	30	8.3	건강상태	보통	110	30.4
	중등졸	57	15.7		거의 건강 못함	30	8.3
	고등졸	160	44.2		매우 건강 못함	6	1.7
	대학졸	79	21.8	직업	자영업	97	26.8
	대졸이상	36	9.9		공무원	24	6.6
월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55	15.2		회사원	30	8.3
	100-200만원 미만	117	32.3		전문자유직	21	5.8
	200-300만원 미만	101	27.9		주부	70	19.3
	300-400만원 미만	54	14.9	농축수산업	34	9.4	
	400만원 이상	35	9.7	은퇴	37	10.2	
거주지	제주시	227	62.7	기타		49	13.5
	서귀포시	135	37.3				

성별은 남성이 199명으로 55.0%, 여성이 163명으로 45.0%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55세 이상-60세 미만이 223명으로 61.6%, 60세 이상 - 65세 이하가 139명으로 38.4%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55세 이상-60세 미만의 연령층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설문 문항이 많아서 기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비율의 차이를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은 초등졸이 30명으로 8.3%, 중등졸 57명으로 15.7%, 고등졸은 160명으로 44.2%, 대졸 19명으로 21.8%, 대졸이상이 36명으로 9.9%를 보였고, 고등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월 가계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117명으로 32.3%, 200-300만원 미만이 101명으로 27.9%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는 제주도 지역의 예비노년층이 227명으로 62.7%, 서귀포시 지역 예비노년층 135명으로 37.3%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유무에서는 ‘현재 있다’가 338명으로 93.4%비율을 나타냈고, ‘현재 없다’가 24명으로 6.6%를 나타냈다. 예비노년층인 연령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배우자는 ‘있다’는 비율이 많고, 건강상태가 양호해진 경향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건강하다는 81명으로 22.4%이고 거의 건강한편이다가 135명으로 37.3%이고, 보통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110명으로 30.4%, 거의 건강한 편이 아니라는 30명으로 8.3%,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6명으로 1.7%로 나타나서 예비노년층의 연령대에서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대체로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이 97명으로 26.8%의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고, 공무원이 24명으로 6.6%, 회사원이 30명으로 8.3%, 전문자유직이 21명으로 5.8%, 주부 70명으로 19.3%, 농축수산업은 34명으로 9.4%, 은퇴가 37명으로 10.2%, 기타가 49명으로 13.5%의 비율을 나타냈다.

2) 여가활동 유형별 표본의 특성

여가활동 유형별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여가활동을 동적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동적여가활동에는 189명이 응답했으며, 정적여가활동에는 173명이 응답하였다.

<표 4-2> 여가활동 유형별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유형				
			여가활동 종류	빈도			
동적여가활동	189	52.2	오름/등산	51			
			골프	37			
			헬스	24			
			조깅	16			
			베드민턴	19			
			댄스(무용/춤)	8			
			스포츠댄스	6			
			게이트볼	6			
			요가·수영 등	21			
			노래	20			
			글쓰기/독서	19			
정적여가활동	173	47.8	차마시기	9			
			원예	9			
			요리	9			
			집안가꾸기	8			
			교양강좌듣기	8			
			쇼핑하기	7			
			친구 만남 등	84			
			합계	362	100		

동적여가활동에서는 걷기, 골프, 헬스, 여행/관광 등이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적여가활동에서는 노래 부르기, 글쓰기/독서가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살펴볼 때 예비노년층에서는 정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신체를 많이 활용하는 활동적인 여가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항목이나 척도가 어느 정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결과가 추가적인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이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

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일관성이란 둘 이상의 관찰자가 각기 관찰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즉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⁵⁸⁾ 신뢰성 측정은 측정의 정확성과 결과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보통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Ch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내적일관성을 검증한다. 따라서 알파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¹⁵⁹⁾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해 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타당성, 기준에 의한 타당성, 개념타당성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내용타당성이란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어느 정도 측정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에 대한 측정이 미래시점에 있어서의 다른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념타당성은 한 개념이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설문 자체의 타당성을 양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계적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측정변수에 의해 측정된 잠재변수에 의해 측정된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연구모형 검증 전에 측정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지 않거나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이론적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나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탐색적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의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8) 채서일(2005).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엔엠북스, p.175.

159) 채서일(2005). 상계서, p.182.

1) 탐색적 요인분석(EFA)

탐색적 요인분석은 모든 공통요인들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관찰변수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요인을 평가하거나 주어진 자료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여 자료에 대한 가치를 기술하여 해석할 수 있다.¹⁶⁰⁾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Kaiser(1974)의 표본 적합도를 산출하여 변수들 사이의 내부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본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0.8이상이면 매우 좋으며, 0.4미만이면 요인 분석을 실행하기 곤란한 값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각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각 척도에 포함된 항목들 가운데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이 0.4이상인 문항들만 선택하였고, 이 가운데 한 요인에만 적재되지 않고 다른 요인에도 함께 적재된 경우 그 항목은 제거하였다. 공통성(communality)의 값이 0.4미만이면 각 요인을 설명하는 해당 항목의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의 척도 신뢰도인 Ch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0.6이상인지 살펴보았고, 0.6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여가동기에 관한 타당성 분석 결과 KMO값은 .723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검증 χ^2 의 값은 870.698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고유치를 1을 기준으로 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각에 대한 분산설명력을 살펴보면 1요인이 39.292%, 2요인이 18.719%, 3요인이 13.572%로 나타났고 총 분산설명력은 71.582%로 나타났다.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 0.5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 결과 1요인에는 6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다. 요인명은 '정서적동기'라 명명하였다. 2요인에는 2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사회적동기'라 명명하였으며, 3요인도 2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으며, 요인명은 '즐거움동기'라 명명하였다. 3개 요인에 대한 신뢰성분석 결과 1요인은 .851, 2요인은 .857, 3요인은 .788의 값을 나타내 모두 0.6이상의 값을

160)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pp.145-224.

나타내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와 비교하였을 때도 요인별 신뢰성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측정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뢰성 및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표 4-3>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동기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명	성분			공통성	항목제거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2	3			
정서적동기	mot1	.854	.121	-.004	.744	.811	.851
	mot2	.840	.064	-.068	.714	.823	
	mot3	.717	-.026	.328	.623	.813	
	mot4	.708	-.193	.237	.595	.818	
	mot6	.609	-.327	.373	.555	.822	
	mot5	.581	-.356	.301	.617	.830	
사회적동기	mot10	-.034	.920	.068	.852	-	.857
	mot11	-.034	.907	-.017	.824	-	
즐거움동기	mot13	.030	.178	.907	.855	-	.788
	mot14	.286	-.129	.825	.780	-	
고유치			3.929	1.872	1.357		
분산설명력(%)			39.292	18.719	13.572		
누적분산설명력(%)			39.292	58.011	71.582		
KMO=.723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870.698$		유의확률=.000***			

*** p<.001

여가제약에 관한 타당성 분석 결과 KMO값은 .690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검증 χ^2 의 값은 344.610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한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분산설명력을 살펴보

면 1요인이 34.419%, 2요인이 24.175%로 나타났고 총 분산설명력은 61.594%로 나타났다. 요인적재값은 0.5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 결과 1요인에는 4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다. 요인명은 '물리적제약'이라 명명하였다. 2요인에는 3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개인적제약'이라 명명하였다. 2개 요인에 대한 신뢰성분석 결과 1요인은 .781, 2요인은 .687의 값을 나타내 모두 0.6이상의 값을 나타내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와 비교하였을 때도 요인별 신뢰성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측정변수는 분석에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제약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명	성분		공통성	항목제거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2			
물리적 제약	con13	.823	.121	.554	.692	.781
	con14	.779	-.015	.746	.731	
	con8	.755	.216	.562	.726	
	con12	.729	-.019	.617	.754	
개인적 제약	con3	-.017	.864	.532	.448	.687
	con2	.039	.743	.693	.638	
	con4	.176	.729	.608	.674	
고유치		2.619	1.692			
분산설명력(%)		37.419	24.175			
누적분산설명력(%)		37.419	61.594			
KMO=.690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344.610$		유의확률=.000***		

*** p<.001

여가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가제약 협상(negotiation)의 신뢰성 및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값은 .704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검증 χ^2 의 값은 334.825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각에 대한 분산설명력을 살펴보면 1요인이 45.725%, 2요인이 22.180%로 나타났고, 총 분산설명력은 67.905%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 .5를 기준으로 하였고, 1요인에는 4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다. 그에 대한 요인명은 ‘시간/기술협상’이라 명명하였다. 2요인에는 2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그에 대한 요인명은 ‘금전협상’이라 명명하였다. 2개 요인에 대한 신뢰성분석 결과 1요인은 .798, 2요인은 .716의 값을 나타내 모두 0.6이상의 값을 나타내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와 비교하였을 때도 요인별 신뢰성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측정변수는 없어서 분석에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명	성분		공통성	항목제거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2			
시간/기술 협상	neg1	.878	.045	.688	.703	.798
	neg3	.843	.130	.711	.734	
	neg4	.811	.233	.659	.764	
	neg5	.799	.049	.587	.786	
금전 협상	neg12	.088	.832	.772	-	.716
	neg13	.146	.815	.779	-	
고유치		2.743	1.331			
분산설명력(%)		45.725	22.180			
누적분산설명력(%)		45.725	67.905			
KMO=.704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334.825$		유의확률=.000***		

*** p<.001

여가참여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값은 .722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χ^2 의 값은 478.466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4개 문항 중 PAR3인 “여가활동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다”의 항목은 제거되었고 3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산설명력은 75.511%로 나타났다. 요인명은 ‘여가참여’라고 명명하였고,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848로 신뢰성이 높아서 최종 분석에 이용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4-6>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참여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	성분	공통성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여가참여	PAR2 시간 투자 함	.888	.771	.770	.848
	PAR1 자주 참여 함	.863	.758	.771	
	PAR4 타인에게 적극권함	.859	.732	.774	
	고유치	2.243			
	총분산설명력(%)	75.511			
KMO= .722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478.466$		유의확률=.000***	

*** p<.001

여가 지속의도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4개 문항 중 COS3인 “65세 이후에도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돈을 투자할 것이다”의 항목은 제거되었고 3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4-7>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65세 이후 여가 지속의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	성분	공통성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여가 지속의도	COS2 시간 투자 할 것임	.956	.914	.882	.936
	COS4 타인에게 적극 권할 것임	.941	.885	.907	
	COS1 계속 참여 할 것임	.927	.859	.928	
고유치		2.658			
총분산설명력(%)		88.602			
KMO= .754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985.611$		유의확률=.000***	

*** p<.001

KMO 값을 확인해보면 .754로 .5 이상의 값을 나타내 요인분석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고, Bartlett의 구형성검증 χ^2 값이 985.611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분산설명력은 88.602%이고, 요인명은 ‘여가 지속의도’라고 명명하였다.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936으로 신뢰성이 높아서 최종 분석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여가동기에 관한 타당성 분석 결과 KMO값은 .674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검증 χ^2 의 값은 554.485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고유치를 1을 기준으로 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4-8>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동기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명	성분				공통성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2	3	4			
즐거움동기	mot13	.814	.035	.126	.011	.783	.648	.742
	mot14	.745	.146	.006	.206	.830	.668	
	mot3	.699	.433	.067	.040	.682	.660	
	mot9	.632	-.083	.203	.164	.806	.739	
안정추구동기	mot1	-.013	.878	-.036	.103	.750	-	.764
	mot2	.241	.844	.109	.219	.475	-	
사회적동기	mot10	.113	-.044	.922	.012	.865	-	.823
	mot11	.165	.108	.893	-.009	.836	-	
건강동기	mot5	.127	.044	.027	.887	.680	-	.699
	mot6	.165	.292	-.028	.798	.619	-	
고유치		3.292	1.778	1.198	1.059			
분산설명력(%)		32.916	17.778	11.976	10.590			
누적분산설명력(%)		32.916	50.694	62.670	73.260			
KMO=.674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554.485$			유의확률=.000***			

*** p<.001

각각에 대한 분산설명력을 살펴보면 1요인이 32.916%, 2요인이 17.778%, 3요인이 11.976%, 4요인이 10.590%로 나타났고, 총 분산설명력은 73.260%로 나타났다. 요인 적재량 0.5를 기준으로 한 결과 1요인에는 4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즐거움동기’라 명명하였다. 2요인에는 2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안정 추구동기’라 명명하였으며, 3요인에는 2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사회적동기’라 명명하였으며, 4요인에는 2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건강동기’라 명명하였다. 4개 요인에 대한 신뢰성분석 결과 1요인은 .742, 2요인은 .764, 3

요인은 .823, 4요인은 .699의 값을 나타내 모두 .6 이상의 값을 나타내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와 비교하였을 때도 요인별 신뢰성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측정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제약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명	성분			공통성	항목제거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2				
개인적 제약	con2	.811	.151	.083	.688	.714	.799
	con3	.749	.046	.204	.604	.755	
	con1	.746	.332	-.012	.667	.733	
	con4	.745	.063	.242	.617	.760	
구조적 제약	con14	.143	.893	.109	.830	-	.678
	con13	.192	.845	.216	.798	-	
대인적 제약	con9	.008	.020	.779	.607	.599	.635
	con7	.173	.302	.704	.617	.472	
	con8	.274	.112	.691	.566	.529	
고유치		3.558	1.309	1.128			
분산설명력(%)		39.528	14.550	12.531			
누적분산설명력(%)		39.528	54.078	66.609			
KMO=.690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344.610$			유의확률=.000***		

*** p<.001

여가제약에 관한 타당성 분석 결과 KMO값은 .690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검증 χ^2 의 값은 344.610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고유치를 1을 기준으로 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각에 대한 분산설명력을 살펴보면 1요인이 39.528%, 2요인이 14.550%, 3요인은 12.531%로 나타났고, 총 분산설명력은 66.609%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 0.5를 기준으로 한 결과 1요인에는 4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개인적제약'라 명명하였다. 2요인에는 2개의 측정변

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구조적제약'라 명명하였으며, 3요인도 2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대인적제약'라 명명하였다. 3개 요인에 대한 신뢰성분석 결과 1요인은 .799, 2요인은 .678, 3요인은 .635의 값을 나타내 모두 0.6 이상의 값을 나타내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와 비교하였을 때도 요인별 신뢰성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측정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표 4-10>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명	성분		공통성	항목제거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2			
시간/기술협상	neg1	.876	-.008	.763	.752	.826
	neg2	.870	.083	.767	.746	
	neg3	.734	.208	.582	.807	
	neg8	.722	.207	.564	.813	
금전협상	neg12	.096	.855	.740	-	.655
	neg13	.149	.844	.734	-	
고유치		2.865	1.287			
분산설명력(%)		47.744	21.450			
누적분산설명력(%)		47.744	69.194			
KMO=.757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330.448$		유의확률=.000***		

*** p<.001

여가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가제약 협상(negotiation)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값은 .757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검증 χ^2 의 값은 330.448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으며, 고유치를 1을 기준으로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각에 대한 분산설명력을 살펴보면 1요인이 47.744%, 2요인이

21.450%로 나타났고, 총 분산설명력은 69.194%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 .5를 기준으로 한 결과 1요인에는 4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시간/기술 협상’이라 명명하였다. 2요인에는 2개의 측정변수가 설정되었고 요인명은 ‘금전 협상’이라 명명하였다. 2개 요인에 대한 신뢰성분석 결과 1요인은 .826, 2요인은 .655의 값을 나타내 모두 .6 이상의 값을 나타내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와 비교하였을 때도 요인별 신뢰성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측정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분석에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여가참여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	성분 1	공통성	항목제거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여가참여	PAR1 자주 참여 함	.937	.878	-	.862
	PAR2 시간 투자 함	.937	.878	-	
고유치		1.757			
총분산설명력(%)		87.848			
KMO= .501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145.086$		유의확률=.000***	

*** p<.001

여가참여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값은 .501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검증 χ^2 의 값은 145.086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4개 문항 중 PAR3인 “여가활동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다”의 항목과 “주변에 여가활동참여를 권하고 있다”의 항목은 제거되었고 2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에 이용되었다. 총 분산설명력은 87.847%로 나타났다. 요인명은 ‘여가참여’라고 명명하였고,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862로 신뢰성이 높아서 신뢰성이 높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정적여가활동 집단의 65세 이후 여가 지속의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	성분 1	공통성	항목제거 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여가 지속의도	COS4 타인에게 적극 권할 것임	.940	.883	.873	.922
	COS2 시간 투자 할 것임	.927	.860	.893	
	COS1 계속 참여 할 것임	.924	.854	.897	
고유치		2.597			
충분산설명력(%)		86.569			
KMO= .760		Bartlett의 구형성검증 $\chi^2=385.372$		유의확률=.000***	

*** p<.001

여가 지속의도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4개 문항 중 COS3인 “65세 이후에도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돈을 투자할 것이다”의 항목이 제거되어 3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에 이용되었다. KMO 값을 확인해보면 .760로 0.5이상의 값을 나타내 요인분석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고, Bartlett의 구형성검증 χ^2 값이 385.372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명은 ‘여가 지속의도’라고 명명하였고, 총 분산설명력은 86.569%으로 설명되고 있다.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922로 신뢰성이 높아서 분석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확인적 요인분석(CFA)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자의 지식에 근거하여 내재된 요인 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요인분석에서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배후에 숨겨져 있는 적은 수의 잠재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잠재요인(latent factor)은 개념(construct), 공통요인(common factor), 잠재변수(latent variable) 등의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연구방법론에서는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로 이해하면 되며¹⁶¹⁾ 본 연구에서도 연구모형과 함께 각 잠재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수들과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은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관측된 측정치들이 특정한 요인(잠재요인)들을 구성하는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모델이라고 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일반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 모델의 한 부분으로서 특정 개념의 측정에 대한 척도의 타당성 평가에 특히 유용한 분석방법이다¹⁶²⁾.

구조방정식모형과 관련하여 모형의 평가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적합지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신뢰도(CCR: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카이제곱통계량(χ^2 : df, 유의도), Q값(χ^2/df), 기초합지수(GFI: Goodness-of-Fit Index), 조정부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표준부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원소 간 평균차이(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기초부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를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개념신뢰도는 0.7이상(CCR: ≥ 0.7 가 바람직함), 분산추출지수는 0.5이상(AVE: ≥ 0.5 가 바람직함)이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Q값은 3이하($\chi^2/df \leq 0.3$)

161) 김계수 (2007). 『AMO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p.347.

162) 최성대 (2008). 『은행의 관계마케팅 관련 요인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8.

가 바람직함), 기초합지수 0.9이상(GFI: ≥ 0.9 가 바람직함), 조정부합지수 0.9이상 (AGFI: ≥ 0.9 가 바람직함), 표준부합지수 0.9이상(NFI: ≥ 0.9 가 바람직함), 원소 간 평균차이는 0에 가까울수록(RMR: ≤ 0.05 가 바람직함), 기초부합지수(CFI)는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척도들의 집중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개념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적용하여 모수를 측정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단일차원성을 확인하였다. 최대우도법은 모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요인의 적재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데 통계적 검정도 가능하다.

<표 4-13> 동적여가활동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잠재요인	측정요인	표준적재치	SMC ^a	AVE ^b	CCR ^c
여가동기	MOT1 정서적 동기	.818	.148	.616	.533
	MOT2 사회적 동기	.154	.469		
	MOT3 즐거움 동기	.471	.186		
여가제약	CON1 물리적 제약	.733	.449	.536	.420
	CON2 개인적 제약	.243	.374		
여가제약 협상	NEG1 시간/기술 협상	1.371	-.947	.899	.874
	NEG2 금전 협상	.198	1.223		
여가참여	PAR1 시간을 투자함	.778	.375	.824	.610
	PAR2 자주참여 함	.792	.337		
	PAR4 타인에게 적극 권함	.785	.471		
여가 지속의도	COS1 시간을 투자 할 것임	.870	.489	.882	.713
	COS2 자주 참여 할 것임	.950	.176		
	COS4 타인에게 적극 권할 것임	.913	.338		

a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치

b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값)

c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구성개념신뢰도)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hi^2(df, \text{유의확률})=383.933(55, 0.000)$, $Q=6.981$,

GFI=.870, AGFI=.786, RMR=.103, NFI=.834, CFI=.853으로 적합도 권장수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수준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 값은 0.7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거의 근접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성개념 신뢰도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성개념신뢰도에서 여가 제약이 0.5의 값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비노년층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여가동기 측정도구가 아직 따로 개발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보완을 전제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개념은 수렴타당성 또는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4> 요인의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구분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여가참여	여가 지속의도
여가동기	0.533 ^a				
여가제약	0.002 ^b	0.420 ^a			
여가제약 협상	0.370 ^b	0.006 ^b	0.874 ^a		
여가참여	0.245 ^b	0.000 ^b	0.289 ^b	0.610 ^a	
여가 지속의도	0.006 ^b	0.009 ^b	0.009 ^b	0.013 ^b	0.713 ^a

a: 분산추출지수, b: 각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판별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를 살펴보았다. 두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2)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인들의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대각선 값)를 분석한 결과 각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2)보다 크기 때문에 요인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15> 정적여가활동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잠재요인	측정요인	표준적재치	SMC ^a	AVE ^b	CCR ^c
여가동기	MOT1 즐거움 동기	.623	.405	.702	.567
	MOT2 안정추구 동기	.618	.690		
	MOT3 사회적 동기	.749	.576		
	MOT4 즐거움 동기	.493	.505		
여가제약	CON1 개인적 제약	.588	.655	.748	.599
	CON2 구조적 제약	.582	.766		
	CON3 대인적 제약	.668	.301		
여가제약 협상	NEG1 시간/기술 협상	.813	.340	.868	.657
	NEG2 금전 협상	.382	.681		
여가참여	PAR1 시간을 투자함	.972	.074	.875	.681
	PAR2 자주참여 함	.774	.449		
	PAR4참여를 권함	.702	.671		
여가 지속의도	COS1 시간을 투자 할 것임	.882	.384	.892	.711
	COS2 자주 참여 할 것임	.877	.398		
	COS4 타인에게 적극 권할 것임	.922	.280		

a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치

b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값)

c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구성개념신뢰도)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hi^2(df, \text{유의확률})=165.836(70, 0.000)$, $Q=2.369$, $GFI=.881$, $AGFI=.821$, $RMR=.097$, $NFI=.844$, $CFI=.901$ 으로 적합도 권장수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수준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 값은 0.7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거의 근접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성개념 신뢰도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성개념신뢰도에서 여가 제약이 0.5의 값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비노년층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여가동기 측정도구가 아직 따로 개발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보완을 전제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개념은 수렴타당성 또는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6> 요인의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구분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여가참여	여가 지속의도
여가동기	0.567 ^a				
여가제약	0.056 ^b	0.599 ^a			
여가제약 협상	0.081 ^b	0.114 ^b	0.657 ^a		
여가참여	0.157 ^b	0.038 ^b	0.197 ^b	0.681 ^a	
여가 지속의도	0.024 ^b	0.015 ^b	0.007 ^b	0.007 ^b	0.71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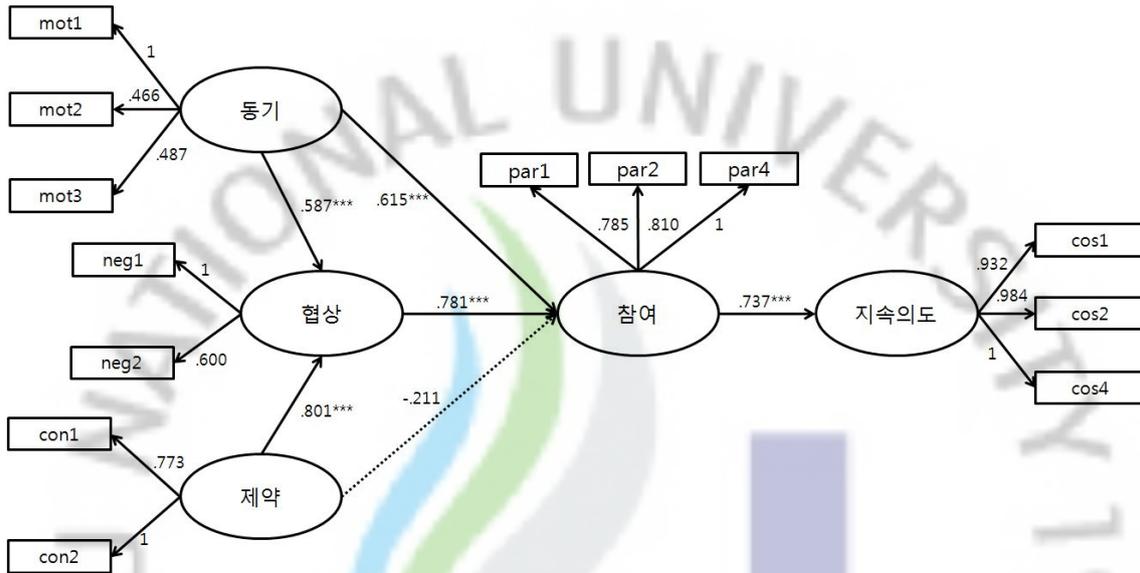
a: 분산추출지수, b: 각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판별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를 살펴보았다. 두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2)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인들의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대각선 값)를 분석한 결과 각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r^2)보다 크기 때문에 요인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가설 검증

1) 동적여가활동 참여 집단의 모형검증

<그림 4-1> 동적여가활동 참여 집단의 모형검증



모형적합도: $\chi^2(df, 유의도)=111.098(48, .000)$, $Q=2.799$, $GFI=.899$, $AGFI=.871$, $RMR=.069$, $CFI=.930$

<표 4-17> 동적여가활동 집단의 모형 검증 결과

구분	항목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가설채택 여부
경로1	여가동기	⇒ 여가제약 협상	.587	.180	5.129 ***	가설채택
경로2	여가제약	⇒ 여가제약 협상	.801	.333	9.345 ***	가설채택
경로3	여가동기	⇒ 여가참여	.615	.171	5.668 ***	가설채택
경로4	여가제약	⇒ 여가참여	-.211	.165	-1.652	가설기각
경로5	여가제약 협상	⇒ 여가참여	.781	.083	7.989 ***	가설채택
경로6	여가참여	⇒ 여가지속의도	.737	.084	8.864 ***	가설채택

모형적합도: $\chi^2(df, 유의도)=111.098(48, .000)$, $Q=2.799$, $GFI=.899$, $AGFI=.871$, $RMR=.069$, $CFI=.930$

* $p<.05$, ** $p<.01$, *** $p<.001$

동적여가활동 집단에 대한 모형 검증을 위하여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여가참여, 여가 지속의도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17> 과 같이 가설4를 제외한 5개의 가설이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 \text{유의도})$ 는 111.098(48, .000)이며, Q값은 2.799, GFI는 .899, AGFI는 .871, RMR은 .069, CFI는 .930으로 전반적으로 적합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차요인모형(high-order factor model)을 이용하였는데 고차요인 모형은 연구모형구축과정에서 요인과 변수의 관계를 2차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요인모형은 단일 잠재요인과 변수의 구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라면 고차요인모형은 특수한 측정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모형 구축 시 1차 요인모형과 2차 요인모형 구축은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고차 요인모형 중에서 주로 2차 요인모형(second-order factor model)을 사용한다. 2차 요인모형은 이론적인 근거와 경험적인 배경 하에서 2개 층(two layer) 잠재요인을 갖는 모형을 말하는데¹⁶³⁾ 본 연구에서도 2차 요인모형을 활용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에서 2차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여가참여, 여가 지속의도에서 1차 요인모형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세부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가설1은 ‘여가동기는 여가제약 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고, 동적여가활동에 대한 여가동기가 강할수록 여가제약 협상이 직접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587의 경로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CR값은 5.129로 $p < .001$ 의 유의수준을 나타내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동적여가활동에 대한 여가동기는 직접적으로 여가제약 협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적여가활동 동기가 강할 때에는 여가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의지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설2는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고, 동적여가활동에 대한 여가제약이 강할수록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 값은 .801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CR값은 9.345를 나타내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적여가활동에 참석하는 예비노년층의 경우 여가제약이 발

163) 김계수 (2007). 전계서, p.349.

생하는 경우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협상의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셋째, 가설3은 '여가동기가 여가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고, 동적여가활동에 대한 여가동기가 강해질수록 여가참여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 값은 .615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CR값은 5.668로 $p < .001$ 의 값을 나타내 여가동기가 여가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 결과를 살펴볼 때 예비노년층 중 동적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에서는 여가활동 동기가 직접적으로 여가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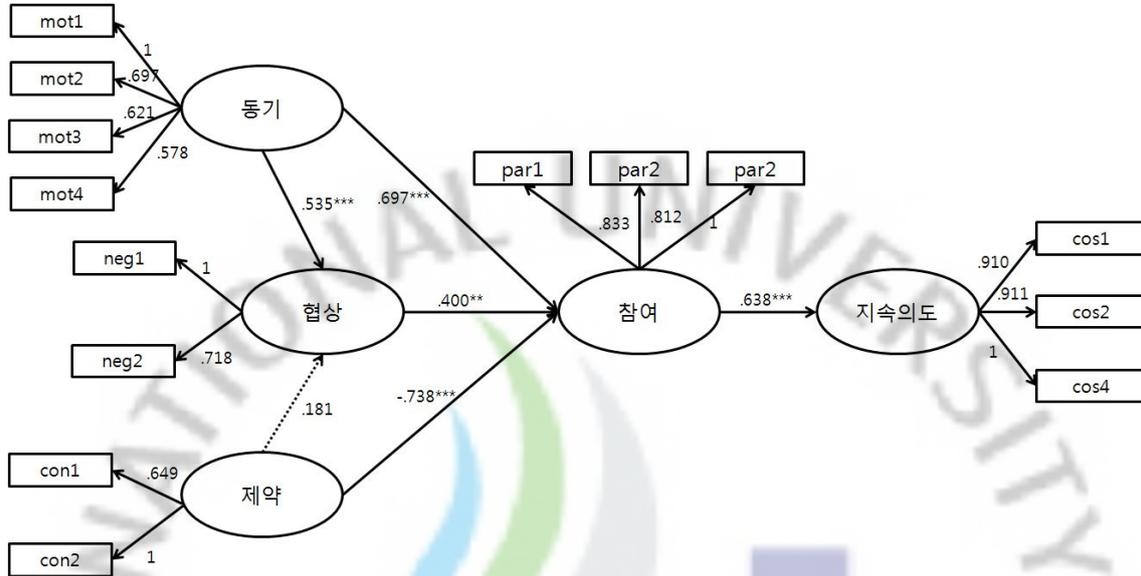
넷째, 가설4는 '여가제약이 여가참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는데 동적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이 강해질수록 여가참여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경로계수 값은 -.211의 값을 나타내 여가제약이 여가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CR값을 보면 -1.652로 $p > .05$ 의 값을 나타내 경로계수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가설5는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는데 동적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예비노년층의 경우 여가제약 협상이 잘 이뤄질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781의 값을 나타냈고 CR값은 7.989의 값을 나타내 $p < .001$ 의 유의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섯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여섯째, 가설6은 '여가참여가 여가 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고, 동적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예비노년층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미래에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737의 값을 나타냈으며 CR값은 8.864로 $p < .001$ 의 수준을 나타내어 여가참여가 여가 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섯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2) 정적여가활동 참여집단의 모형검증

<그림 4-2> 정적여가활동 참여집단의 모형검증



모형적합도: $\chi^2(df, 유의도)=217.457(70, .000)$, $Q=2.788$, $GFI=.877$, $AGFI=.823$, $RMR=.099$, $CFI=.899$

<표 4-18> 정적여가활동 참여 집단의 모형 검증

구분	항목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가설채택 여부
경로1	여가동기	⇒ 여가제약 협상	.535	.157	3.775 ***	가설채택
경로2	여가제약	⇒ 여가제약 협상	.181	.103	1.018	가설기각
경로3	여가동기	⇒ 여가참여	.697	.264	6.173 ***	가설채택
경로4	여가제약	⇒ 여가참여	-.738	.197	-7.231 ***	가설채택
경로5	여가제약 협상	⇒ 여가참여	.400	.337	3.199 **	가설채택
경로6	여가참여	⇒ 여가지속의도	.638	.008	6.087 ***	가설채택

모형적합도: $\chi^2(df, 유의도)=217.457(70, .000)$, $Q=2.788$, $GFI=.877$, $AGFI=.823$, $RMR=.099$, $CFI=.899$

* $p<.05$, ** $p<.01$, *** $p<.001$

정적여가활동 참여집단의 모형 검증을 위하여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여가참여, 여가 지속의도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18>과 같이 가설2를 제외한 5개 가설이 채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 \text{유 의도})$ 는 217.457(70, 000)이며, Q값은 2.788, GFI는 .877, AGFI는 .823, RMR값은 .099, CFI는 .899로 적합수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 지수가 모형이 적합함을 설명해주고 있다.

모형의 세부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가설1은 ‘여가동기가 여가제약 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로계수는 .535의 값을 나타냈고 이에 대한 CR값은 3.775로 $p < .001$ 의 유의수준을 나타내어 경로계수 값이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적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예비노년층의 경우 여가동기가 강하면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분석결과도 같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여가동기가 여가제약 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둘째, 가설2는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를 검증하였는데, 정적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예비노년층의 경우 여가제약이 발생하면 여가제약 협상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181의 값을 나타냈고 CR값은 1.018을 나타내어 $p > .05$ 수준에서 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정적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예비노년층의 경우 여가제약이 발생하면 협상의지가 강해지기보다는 여가참여를 멈추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가설3은 ‘여가동기가 여가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였고, 정적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예비노년층의 경우 여가동기가 직접적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697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CR값이 6.173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경로계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가동기가 강할수록 여가참여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3은 채택되었다.

넷째, 가설4는 ‘여가제약이 여가참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정적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예비노년층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 시 여가제약이 직접적으로 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738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CR값은 -7.231로 $p < .001$ 의 유의수준

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서 여가제약이 여가참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가설5는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400의 값을 나타냈으며 CR은 3.199로 $p < .01$ 수준을 나타내 경로계수 값이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참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가설6은 ‘여가참여가 여가 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638의 값을 나타냈고 CR값은 6.087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적여가활동 집단과 마찬가지로 정적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예비노년층의 경우에도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노년층에 들어서도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가참여가 여가 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6은 채택되었다.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유형에 따라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여가참여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 65세 이후 노년까지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가 지속의도라는 새로운 변수를 넣어 모델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 및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여가참여 그리고 여가 지속의도에 대한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여가활동 유형별 차이를 보는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예비노년층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여가제약 협상을 시도하는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많았으며, 예비노년층 표본의 연령대인 55세 이상-65세 미만에서 55세 이상-60세 미만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력은 고등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배우자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다’의 답변이 93.4%를 나타내며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은 100-200만원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노년층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나눈 결과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름/등산, 골프, 조깅 등을 포함하는 ‘동적여가활동’과 비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글쓰기/독서, 원예 등을 포함하는 ‘정적여가활동’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동적여가활동에서의 동기요인은 ‘정서적동기’, ‘사회적 동기’, ‘즐거움동기’와 같은 3개의 요인이, 정적여가활동에서의 동기요인은 ‘즐거움동기’ ‘안정추구동기’, ‘사회적동기’, ‘건강동기’와 같은 4요인이 각각 도출되었다.

여가제약 요인은 동적여가활동에서는 ‘물리적제약’, ‘개인적제약’과 같은 2개 요인이, 정적여가활동에서는 ‘개인적제약’, ‘구조적제약’, ‘대인적제약’과 같은 3개 요인이 각각 도출되었다. 여가제약 협상은 동적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 모두 ‘시간/기술협상’, ‘금전협상’과 같은 2개 요인이 각각 도출되었다.

셋째,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별로 여가제약 협상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적여가활동에서 여가제약은 여가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여가제약이 발생했을 때 여가제약 협상을 하기 위한 노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참여에 강하게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하였고, 정적여가활동에서는 여가제약이 여가참여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가제약이 발생하여도 여가제약 협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여가참여에 매개요인의 역할은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예비노년층 참여하고 있는 동적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인 두 유형 모두는 65세 이후 노년까지의 여가 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노년까지 계속 지속하고 싶다는 지속의도를 두 유형이 모두 갖고 있다고 나타났다. 일단 여가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활동이 동적여가활동이든 정적여가활동이든 모두 지속할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검증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여가동기는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가동기는 여가제약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여가참여는 여가 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여가활동 유형별 모형의 구조적 관계는 여가제약 협상의 매개 요인의 역할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결과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현대인들의 여가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유형을 모두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 그리고 모든 유형을 연령 구분 없이 일반화 시키는 것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사회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대비

를 하고자 예비노년층이라는 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예비노년층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나누었을 경우 그 유형이 세분화됨에 따라 여가 참여시 변수가 될 수 있는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이 선행연구들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면서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들 변수간의 관계가 더욱 선명하게 규명되고 검증된다면 예비노년층들에게 향후 하고자 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와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유형별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활동, 여가동기와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여가동기, 여가제약 그리고 참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들 관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여가제약 협상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변수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검증을 시도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도 예비노년층이라는 중요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게 이루어져왔다.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그리고 여가참여의 변수들 관계를 검증하는 시도는 Hubbard et al.(2001)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보고 있다. 이들 관계를 전체적인 구조관계로 보고 전자의 모델을 확장하여 연구한 것은 Son et al.(2008)¹⁶⁴⁾이다. 이 연구는 동기역할에 주목하면서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여가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면 여가제약 협상도 활발하고 여가참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 최성범(2009)¹⁶⁵⁾은 여가제약은 여가참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가제약 협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여가참여를 위해 여가협상을 매개요인으로하여 여가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른 점은 우선, 여가활동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동적여가활동, 정적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기의 역할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그리고 여가참여라는 변수들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여가제약 협상이 매개요인으로서의 역할에서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구조모형을 통해서 처음으로

164) J.S. Son, A.J. Mowen, & D. Kerstetter(2008). *op. cit.* pp.198-216.

165) 최성범(2009). 전제논문, pp.145-156.

밝힌 것이다. 여가활동 관련 변인들에 대한 이론연구는 현재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초점이 향후 몇 년 이내 노년층인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적용시키고 그들의 여가활동 방향과 의도에 대해 미리 알아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인 것은 틀림없다. 여가활동유형이 어떤 유형이든 여가동기는 여가참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유형에 따른 여가참여의 노력 여부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여가제약 협상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9> 여가제약 협상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분석

구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동적여가활동 집단	여가동기 → 여가참여	0.615	0.954	1.569
	여가제약 → 여가참여	-0.211	1.251	1.04
정적여가활동 집단	여가동기 → 여가참여	0.697	0.440	1.137
	여가제약 → 여가참여	-0.738	0.192	-0.546

또한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노년까지 지속할 지속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변수인 여가 지속의도를 추가하여 전체적인 모델을 검증한 것도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동적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 모두 전체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보이면서 여가참여는 여가 지속의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성범(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이는데, 여가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한 여가제약이 발생하였을 때 여가제약 협상을 매개요인으로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고 확인되었다.

(2) 실증적 시사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예비노년층이다. 즉, 5-10년 후 노년층에 속하는 연령층으로서 이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보았고, 여가활동 유형별로 예비노년층이 가지는 여

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여가참여 및 여가 지속의도에 관한 구조모형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확인하였다.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여가행동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구조관계에 관해 알아본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은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결과는 여가활동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여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았고, 그 연구결과 스포츠와 같은 동적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에서는 적극적인 여가제약 협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반해 원예나 글쓰기/독서 같은 정적여가활동 참여자의 경우에는 여가제약 협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유형에 따라 예비노년층의 성향을 구분하고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성향별 권유하는 여가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석결과가 예비노년층의 여가전반에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적여가활동 집단인 경우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는 정서적동기가 가장 강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여가프로그램이나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적여가활동 집단인 경우는 기쁨이나 자기만족의 변수를 포함하는 즐거움동기가 가장 강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집단의 여가활동은 심리적인 요인과 관계가 깊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동적여가활동 집단인 경우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여가제약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대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자주 준다면 이들은 여가제약이 발생하면 여가참여는 여전히 높을 것이다. 이런 노력은 지역사회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정적여가활동 집단인 경우는 여가제약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여가제약이 발생했다고 해서 여가활동을 그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정보체계나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노년에 다가갈수록 여가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 그리고 심리적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비노년층의 동적, 정적여가활동 참여 집단이 향후 여가 지속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예비노년층의 여가참여에 대해 이해하는데 있어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가 한국의 고령사회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극복 할 수 있는 현상으로 생각될 수 있게끔 여가참여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대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V. 결 론

1. 연구의 요약

노년의 삶이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년에 주어진 여가시간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 현대의 노년층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내고자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노년어가서 새로운 여가활동에 참여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노년기 직전 즉, 예비노년 시기에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사이에는 이들이 노년기가 되었을 때의 여가활동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노년 시기에 즐겨왔던 여가활동은 이들이 노년기가 되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노년층이라는 시기의 여가행동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이 향후 노년층이 되었을 때의 여가행동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예측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류 역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비노년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유형 역시 스포츠 참여와 같은 신체적 활동도 있고, 서예나 그림그리기처럼 취미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으면서 신체적 활동보다는 정신적 활동이 더욱 강조되는 여가활동도 있을 수 있다. 전자를 동적여가활동이라 한다면 후자는 정적여가활동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의 분류는 동적 그리고 정적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여가활동 참여는 여가행동을 유발시키는 여가 동기가 발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동기가 발생했다 해도 모든 인간은 여가제약, 즉 여가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를 누구나 갖고 있게 마련이다. 여가동기와 여가제약의 관계는 서로 여가참여에 상반되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두 요인 사

이에 내부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이들 변수 간 영향관계를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참여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국내에서는 최성범(2009)이 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협상효능감의 변수를 삽입하여 이들 변수의 구조관계를 전체적으로 검증하였고, 황선환 외(2010)의 연구에서는 스키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변수를 넣어서 여가제약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제약 협상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전체적인 구조관계를 검증하였다. 국외에서는 국내보다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Loucks et al.(2007)는 섬유근육통 환자들 대상으로 협상효능감의 변수가 여가동기와 여가제약협상을 매개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면서 변수들 간에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Son et al.(2008)은 여가동기와 협상을 통한 여가참여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전체적으로 검증하고자 시도했다.

본 연구는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여가참여 그리고 노년층이 된 이후의 지속의도까지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여가동기, 제약 그리고 참여간의 구조모형에 대해서는 아직 탐색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변수간의 구조모형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여가제약 협상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탐색적으로만 이루어졌던 예비노년층에 대한 여가 연구에 대해 확인적 모형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여가활동 유형을 동적 및 정적여가활동으로 분류한 후 이 두 가지 여가활동 유형이 구조적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해 제주도내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의 수집은 2010년 4월 1일부터 3일간 예비조사를 거쳐서 신뢰성과 타당성에 맞지 않는 문항을 삭제하고 조정하여 4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9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62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동기의 유형은 먼저 동적여가활동의 경우 기분전환 등의 '정서적동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타인과 관계를 원하는 '사회적 동기' 및 즐거움을 추구하는 '즐거움동기' 등으로 분류되었다. 정적여가활동에서의 참여 동기는 '즐거움동기'가 가장 강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안정추구동기', '사회적동기' 그리고 '건강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 요인은 동적여가활동에서는 '물리적제약', '개인적제약'요인으로, 정적여가활동에서는 '개인적제약', '구조적제약', '대인적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 협상은 동적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 모두 '시간/기술 협상', '금전 협상'의 요인이 각각 도출되었다.

둘째, 동적여가활동이나 정적여가활동 모두 여가동기가 여가제약 협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가활동 참여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제약은 여가활동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적여가활동에서 여가제약은 여가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제약 협상을 통해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적여가활동에서는 여가제약이 협상을 통해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가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적여가활동에서 여가제약 협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on et al.의 연구인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공원방문객에 대한 연구결과(166)와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Son et al.의 여가제약 협상모델에서는 여가동기가 협상을 통해서만 여가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가제약과 협상은 서로 영향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여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최성범(2009)의 여가제약 협상모델의 연구결과(167)는 본 연구의 동적여가활동처럼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제약과 여가참여 사이에서 매개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과 일치된 구조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존의 여가동기, 제약, 협상 및 참여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에서 예비노년층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 현재의 여가활동의 지속여부를 묻는 지속의도 변수를 추가한 확장모델에서도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동적여가

166) J.S. Son, A.J. Mowen, & D. Kerstetter(2008). *op.cit.* pp.198-216.

167) 최성범(2009). 전제논문, pp.145-156.

활동과 정적여가활동 두 모델에서 모두 성립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화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노년층의 여가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예비노년층의 여가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연구가 특정 여가활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예비노년층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을 동적 그리고 정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여 동기와 제약이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는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가동기, 제약, 여가제약협상 그리고 참여 간의 구조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스포츠참여를 대상으로 적용된 것처럼 체육학 분야에서 더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가제약 협상모델을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전반에 걸쳐 처음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여가학 분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가활동 유형을 크게 동적여가활동과 정적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으나 분류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신체적 활동이 강한 여가활동과 정신적 활동이 강한 여가활동을 각각 4-5개만을 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들 집단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구대상지가 제주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과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다. 예비노년층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적여가활동의 표본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시기가 4월로서 초봄에 해당 시기 내에서만 이루어진 점 역

시 여가활동을 동적 그리고 정적여가활동으로 분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은 계절에 따라 참여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런 문제들이 극복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관련분야에서 이론적인 발전과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예비노년층의 여가참여에 대해 이해하는데 있어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령사회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극복 할 수 있는 현상으로 생각될 수 있게끔 여가참여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대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서적

- 김광득(2000).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p.29.
김명자 외(2004). 『노인보건복지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노용구(2001). 『여가학』, 서울: 대경북스.
박동석·김대환·이연선(2004). 『고령화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박석돈(2005). 『노인복지론』, 서울: 삼우사.
박소현·김문수 역.(2001). 『동기: 이론, 연구, 그리고 활용』, 서울: 시그마프레스.
박시사(2005). 『관광소비자행동론』, 서울: 대왕사.
류정무·이강현(1990). 『스포츠심리학』, 대우학술총서, 서울: 민음사
이영분(2004). 『고령화사회와 노인인구의 보건복지』, 건국대학교 출판부.
이인정·최혜경(200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사.
최병길(2009). 『관광경제학』, 서울: 백산출판사.
최성재·장인협(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 논문

- 강길현(2003). 청소년 여가활동 참여정도와 여가계약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pp.851-865.
고동우(2002). 여가동기와 체험의 이해: 이중추동모형과 이중통로 여가체험모형, 『한국심리학회지』, 3(2), pp.1-23.
고보숙·최병길(2010).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제약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1), pp.249-269.
고연화(2009). 은퇴 노인의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재사회화 및 사회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 pp.811-820.
곽한병(2006). 여가활동의 참여동기와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7(6), pp.703-712.
권오정(2005). 예비노년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경향, 『대한건축학회』, 21(2), pp.21-30.
구교만·이은석(2004). 노인의 과거 여가활동 경험이 현재 여가심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pp.325-338.

- 김경식(2009). 사회체육 참가자의 여가제약 극복과정 구조모형 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22(1), pp.61-76
- _____. 황선환·윈도연(2008). 여가제약 협상 전략 척도의 개발과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47(3), pp.365-376.
- _____. 진은희·구경자(2009). 여가동기가 여가제약 극복노력 및 레저스포츠 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레크레이션 학회지』, 33(3). pp.153-162.
- 김남순(1986). 『한국 중년남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진(2000). 예비노인의 집단과 노인집단의 건강관심도 및 건강행위,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관련성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17(2), pp.99-110.
-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양식과 위기, 『대한가정학회지』, 29(1), pp.203-216.
- 김명자·박성연(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pp.97-118.
- 김성희·이철원(2003). 도시근로자의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pp.391-400.
- 김연경(2007). 『남성 고령자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제약과 극복효능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유일·강석희(2000). 여가활동참여에 있어서 제약유형의 위계적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학회지』, 28(1), pp.29-36.
- 문숙재·여윤경(2001). 예비노인의 은퇴와 경제적 복지의 예측, 『한국소비자학회지』, 12(1), pp.115-131.
- 문숙재·윤소영·윤지영(2005). 가족여가의 의미와 동기에 따른 여가만족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pp.31-39
- 박미석(2005). 서울시 시설거주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제약정도와 여가생활만족도-무료양로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4), pp.203-223.
- 박미석·이유리(2003). 한국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pp.37-48.
- 박선희·박명협(2005). 여가·관광 참여 동기요인 연구, 『문화관광연구』, 7(2), 겨울.
-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연구, 『한국노년학』, 29(3), pp.1107-1122.
- 배소심·이영희(2005). 중년여성들의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 차이 분석, 『한국레크레이션학회지』, 28, pp.181-189.
- 변수녀·최병길(2007). 관광의 동기, 만족 및 관광지 충성도간의 관계 구조모형: 제주 휴양관광객대상, 『관광·레저연구』, 19(3), pp.29-48.
- 서용건(2008). 고령화 사회와 여가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산경논집』, 23, pp.103-124.
- 성기원·이연숙·장운정(2005).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현황 및 미래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4), pp.131-146.
- 성영신·고동우·정준호(1996). 여가경험의 심리적 본질: 재미란 무엇인가?, 『소비자학연구』,

- 7(2), pp.35-57.
- 송지준·엄인숙(2008). 중년과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 고독감의 관계, 『대한관광경영학회』, 23(1), pp.43-62.
- 신화경·이준민(2005). 예비노년층이 선호하는 노후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pp.15-23.
- 원형중(1998). 성인근로자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와 제약요인에 관한 기본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2), pp.369-386.
- 윤설민·장윤정·김홍렬(2009). 문화적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동기, 제약 및 만족에 관한 연구, 『호 텔경영학 연구』, 18(2), pp.259-275.
- 윤소영·차경옥(2004). 여가인식, 활동유형 및 여가제약의 세대 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pp.99-107.
- 오상훈(2005). 도시와 농어촌의 여가활동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레 저연구』, 17(1), pp.7-23.
- 이영관(2007). 여가동기와 여가활동유형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 구』, 19(4), pp.343-359.
- 이유리·박미석(2006). 생태학점 관점에서 본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구조방정식 모 형구축을 통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pp.11-30.
- 이은석(2006).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참가유형과 여가인지감 및 여가몰입체험의 관계, 『한국스 포사회학회지』, 19(3), pp.319-338.
- 이은아(2006).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pp.25-42.
- 이인재·이훈(2006). 선행 여가행동과 관련된 제약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학연구』, 30(4), pp.339-357.
- 이정호(2007). 『중년기의 여가생활형태가 가족기능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한(2004). 부산시민의 세대별 여가활동 특성과 여가만족도 비료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 구』, 6(1), pp.345-356.
- 임영삼(2008). 축구동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서 여가제약요인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pp. 97-107.
- 임향일(2007).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1992).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pp.145-161.
- 장재정(1987).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전태준·이철원(2003). 도시 여성근로자의 여가제약형태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 회지』, 42(3), pp.411-420.
- 전태준(2007). 남성골프 참여자들의 여가제약과 협상에 관한 연구, 『한국레저레크리에이션학회 지』, 31(4), pp.141-155.
- 정규업·이창호(1998). 한국인의 해외여행자의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pp.503-510.

- 정소연(2004). 『레저계약협상과정에 관한 구조분석: CEM과 PCR모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희·김현정(2001). 예비노인,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2, pp.129-151.
- 정승용·채재성(1999). 생활체육참가자의 스포츠 참여동기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1, pp.137-146.
- 정우진·최성범(2008).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여가계약이 여가동기와 여가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pp. 133-142.
- 정호권(2006). 『레저스포츠활동의 제약요인과 참여동기 연구-골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아미(2005). 청소년 여가동기가 여가만족도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pp.333-353.
- 지현진·이철원(2003). 보편적 여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5), pp.441-449.
- 지현진(2006). 기혼여성의 레저스포츠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3), pp.17-26.
- 진영아(1995). 『노인층의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선애·한성열(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8(2), pp.17-31.
- 최병길·고보숙·서용건(2009). 예비노년층의 신체적 여가활동 만족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3(1), pp.337-355.
- 최선미(1992). 『도시 중년기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성범(2009).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협상효능감, 여가동기, 여가계약, 여가협상 및 여가참여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4), pp.145-156.
- 최성훈(2010).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직장인들의 여가동기와 여가계약 수준에 따른 여가계약 협상 전략분석, 『체육과학연구』, 21(1), pp.997-1010.
- 최호경(2000).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현숙(2008). 『문화이벤트 동기와 제약이 선호, 협상,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우진(2005). 한국 이민자들의 여가억제 요소와 협상, 『한국체육학회지』, 44(1), pp.603-613.
- 현성곤(2008). 『제주도내 거주 외국인의 여가생활과 만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아(2006). 『중년여성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이경 · 오혜경(2005). 예비노인층의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별공간 계획요소에 대한 선호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pp.37-47.
- 함정혜 · 강선옥(2008).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와 노인여가의 개념,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5), pp.182-185.
- 황선환 · 서희진(2009).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 및 진지한 여가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0(2), pp.298-307.
- _____. · 최홍석 · 한승진(2010).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레크레이션 전문화의 관계: 스키어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1(1), pp.974-983.

2. 국외문헌

1) 서적

- Ballard, S.M & Morris, M.L.(2003). *The family Life Education Meads of Middle Llife and Older Adults*. Family Relations. Apr 52(2).
- Ciulla, J.B.(2000), *The Working Life*, The Crown Publishing Group. 안재진 역(2005). 『일의 발견』, 서울: 다우출판사.
- Deci, E.L., & Ryan, R.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 Dumazedier, J.(1962). *Toward a Society of Leisure*, Translated by S.E. McGiure, NY: Jhon Willy and sons Inc.
- Erickson, E.H.(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W..W.Norton & Company, Inc.
- Grazia, S.(1962). *Of Time, Work and Leisure*, NY: Twentieth Century Fund.
- Hurlock, E.B.(1974). *Dvelopment Psychology*, Tata McGrow-Hill Publishing Company Ltd. Newdelhi.
- Iso-Ahola, S.E.(1989). *Motivation for Leisure*, In E. L. Jackson & T. L. Burton(eds.), *Understanding leisure and recreation: Mapping the ast, charting the future*(421-449).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 Jackson, E.L., & Scott, D.(1999). *Constraints to Leisure In: E.L. Jackson & T.L. Burton(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21C*.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 Leitner, M. J. & Leitner, S. F.(2004). *Leisure in Later Llife*. 3rd, ed. Howorth Press.
- Levinson, D.J., Darrow, C.N., Klein, E.B., Levinson, M.H., & McKee, B.(1978). *The Seasons of a Mam's Life*. NY: Knopf.
- Mannell, Y. & Kleiber, D.A.(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PA: venture.

McIntosh, R.W.(1990). *Tourism; Principal, Practices, Philosophies*, 5th, ed. Jhon Wiley & Sons.
 Murphy, J.F.(1975). *Recreation and Leisure*, 2nd ed.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Inc.
 Parker, S.R.(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NY: International Publication service.
 Petri, H.L.(1995). *Motiv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4th, ed, Wadsworth Publishing Co.
 Sheehy, G. (1976). *Predictable Crisis of Adult Life*, NY: Dutton.

2) 논문

- Alexandris, K., Tosorbatzoudis, G., & Grouious, G.(2002). Perceive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s Participation: Investigationg their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Jornal of Leisure Research*, 34(3), pp.233-252.
- _____, Barkoukis, V., Tsorbazoudis, H., & Groulos, G.(2003). A Study of Perceived Constraints on a Community Based Physical Activity Program for the Elderly in Greece,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11, pp.305-318.
- _____, Kouthouris, C., & Girgolas, G.(2007). Investing the Relationships among Motivation, Negotiation, ad Alpine Skiing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4), pp.648-667.
- Andronikidis, A., Vassiliadis, C.A., Priporas, C., & Kamenidou, I.(2006). Examining Leisure Constraints for Ski Centre Visitors: Implications for Services Marketing, *Journal of Hospitality & Leisure Marketing*, 15(4), pp.69-86.
- Allen, K.R. & Chin-sang, V.(1990). A Lifetime of Work: the Context and Meaning of Leisure for Aging Black Woman. *The Gerontologist*, 30, pp.734-740.
- Boothby, J., Tungatt, M.F., & Townsend, A.R.(1981). Ceasing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Reported Reason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pp.1-14.
- Brian, P.O. & Rober, J.V.(2001). Religious Motivation in the Elderly: A French-Canadian Republication and an Exten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1), pp. 53-59.
- Caroll, B. & Alexandris, K.(1997).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 Relationship to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 Gree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3), pp.279-299.
- Cathy, H.C., Liping, A.C., & Kevin, K.F(2007). A Model of Senior Tourism Motivation-Anecdotes from Beijing and Shanghai, *Tourism management*, 28, pp.1262-1273.
- Crawford, D.W. & Godbey, G.(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3), pp.119-127.
- _____, Jackson, E.L., & Godbey, G.(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tudies*, 15(7), pp.1-11.
- David, C., Herderson, K.A., & Beth. E.W.(2009).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Senior Game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1(1), pp.41-56.
- Dominguez, L.A.(2003). Constraints and Constraint Negotiation by Women Sea Kayakers

- Participating in a Women-Only Course, Submitted to Michigan state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Park, Recreation, and Tourism Resources.
- Fortier, M., Vallerland, R., Briere, N., & Provencher, P.(1995). Competitive and Recreational Sport Structures and Gender: A test of their relationship with participa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ports behavior*. 16, pp.124-145.
- Franken, D.A. & Van Raaji, W.F.(1981).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4), pp.337-352.
- Godbey, G.(1985). Nonuse of Public Leisure Service: A Model,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 Henderson, K.A.(1991). The contribution of Feminism to an Understanding of Leisure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pp.363-377.
- _____, Stalnaker, D., & Taylor, G.(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pp.69-80.
- _____, Bedini, L. A., Hecht, L., & Schuler, R.(1995).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the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tudies*, 14, pp.17-31.
- Hubbard, J. & Mannell, R.C.(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3), pp.145-163.
- Hudson, S. & Gilbert, D.(1999). Tourism Constraints: The neglected dimension in consumer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8(4), pp.67-78.
- Iso-Ahola, S.E., Jackson, E., & Dunn, E.(1994).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 pp.61-84.
- Jackson, E.L.(1988). Leisure Constrain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 10, pp.203-215.
- _____. & Dunn, E.(1991). Is Constrained Leisure an Internally Homogeneous Concept?, *Leisure Sciences*, 13, pp.167-184.
- _____. & Rucks, V.C.(1995).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High and High-Schoo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 pp.85-105.
- _____. & Witt, P.A.(1994). Change and Stability in Leisure Constraints: A comparison of two surveys conducted four years apar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 pp.85-105.
- Jang, S.C. & Wu, C.M.E.(2006). Seniors' Travel Motivation and the Influential Factors: An examination of Taiwanese seniors, *Tourism Management*, 27(2), pp.306-316.
- Kay, T. & Jackson, G.(1991). Leisure Despite Constraint: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pp.301-313.
- Kelly, J.R. & Steinkamp, M.W.(1987). Later-life Satisfaction: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 9, pp. 190-200.
- Lee, Y.(1999). Toward a Globalization of Leisure Research, *The '99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 congress proceeding. pp.971-983.
- Loiser, G.F., Bourque, P.E., & Ballerand, R.J.(1993). A Motivational Model of Leisur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2), pp.153-170.
- Loucks-Atkinson, A. & Mannell, R.C.(2007). Role of Self-Efficacy in th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The case of individuals with fibromyalgia syndrome, *Leisure Science*, 29, pp.19-36.
- Manfredo, M.J., Driver, B.L., & Tarrant, M.A.(1996).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A meta-analysis of the recreation experience preference scal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3), pp.188-213.
- McGuire, F.A.(1984). A Factor Analytic Study of Leisure Constraints in Advanced Adulthood, *Leisure Sciences*, 6, pp.313-326.
- Milan, V. & Nisha, A.(2008).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the Labor Market: The case of Sri Lanka, IZA Discussion Paper, 3456.
- Pelletier, L., Fortier, M., Vallerand, R., Toson, K., Brier, N., & Blais, M.(1995). Toward a New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 Motivation in Sports: The sports motivation scale(SM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hysiology*, 17, pp.35-53.
- Raymore, A.L., Godbey, G.C., & Cawford, D.W(1994). Self-Esteem,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heir Relation to Perception of Constraint on Leis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 pp.99-118.
- _____.(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pp.37-51.
- Regina, M.B.(1997). Migration and the Life Course: Is there a retirement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 pp.109-119.
- Reizes, D.C., Mutran, E.J., & Verill, L.A(1995). Activity and Self-esteem: Continuing the development of activity theory, *Research on aging* 17, pp.260-277.
- Romsa, G. & Hoffman, W.(1980). An Application of Non-Participation Data in Recreation Research: Testing the opportunity theory, *Journal of Leisure Science*, 12, pp.321-328.
- Samdahl, D. & Jekubovich, N.(1997). A Critique of Leisure Constraints: Coparative analyses and understanding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4), pp.430-452.
- Scott, D.(1991). The Problematic Nature of Participation in Contact Bridge: A qualitative study of group-related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pp.321-336.
- Searle, M.S., & Jackson, E.L.(1985). Socioeconomic Variations in Perceived Bar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among Would-be Participants, *Leisure Sciences*, 7, pp.227-249.
- Shaw, S.M., Bonen, A., & McCabe, J.F.(1991). Do More Constraints Mean Less Leisur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s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4), pp.286-300.
- Son, J.S., Mowen, A.J., & Kerstetter. D.(2008). Testing Alternativ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Model: An extension of Hubbard and Mannell's Study, *Leisure Science*, 30, pp.198-216.
- Tinsley, H.E. & Tinsley, D.J.(1986). A Theory of the Attribute, Benefits and cause of Leisure

- Experience, *Leisure sciences*, 8, pp.1-25.
- _____, Colbs, S., Teaft, J., & Kaufman, N.(1987). The Relationship of Age, Gender, Health and Economic Status to the Psychological Benefits Older Persons Report from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Leisure Science*, 9, pp.53-65.
- Uysal, M., Gahan, L., & Martin, B.(1993). An Examination of Event Motivations: A case study,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1(1): 5-10.
- Wessinger, E. & Bandalos, D.(1995).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Scale to Measure Intrinsic Motivation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 pp.379-400.
- White, D.D.(2008). A Structur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in Outdoor Recreation, *Leisure Science*, 30, pp.342-359.
- Witt, P.A. & Goodale, T.L.(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and Leisure Enjoyment and Family Stages, *Leisure science*, 4, pp.24-49.

3. 기타문헌

- 노인복지법(2004). 『2004년 5차 개정』 .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2008 여가백서』 .
- 삼성경제연구소(2008).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관광공사(1989). 『현대여가문화정책』 , 서울: 한국관광공사.
- 한국개발연구원(2005). 『경제동향주요지표』 ,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2007). 『2007 인구조사통계청』 , 서울: 통계청.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u.go.kr)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 엘더호스텔 홈페이지(www.exploritas.org)
- 창의적인 노화를 위한 국립센터 홈페이지(www.creativeaging.org)
- 미국 은퇴자 협회 홈페이지(www.aarp.org)
- 성공적으로 나이 들기 홈페이지(www.go60.com)

<설문지>

NO.

♣ 예비노년층의 여가동기와 여가계약 협상에 관한 설문조사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여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가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제약을 극복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주제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 응답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봄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최 병 길

연구원: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사수료

고 보 숙 (010-2689-8449 / 064-754-3192 / kbs7593@jejunu.ac.kr)

여가활동 유형	구체적인 활동				
동적 여가활동	1. 걷기	2. 조깅	3. 헬스	4. 댄스(무용/춤)	5. 배드민턴
	6. 골프	7. 교양강좌듣기	8. 요가	9. 수영	10. 에어로빅
정적 여가활동	11. 여행/관광	12. 테니스	13. 스키	14. 오름/등산	15. 음악회/영화
	16. 스포츠댄스	17. 케이트볼	18. 노래	19. 풍물활동	20. 쇼핑하기
정적 여가활동	21. 글쓰기/독서	22. 서예	23. 차마시기	24. 원예	25. 그 립
	26. 요리	27. 집안 가꾸기	28. 찜질방	29. 낮잠	30. 장기두기
	31. 화투/카드	32. 친구와 이야기 나누기	33. 음주	34.바둑	
	35.낚시	36. 동화구연	37. 기타		

◆ 1번 - 37번까지의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순위 _____ 번 2 순위 _____ 번

◆ 귀하의 여가활동 참여 횟수는?

- ① 한 달에 한 번 ② 한 달에 2 - 3번 ③ 일주일에 한 번
- ④ 일주일에 2 - 3번 ⑤ 일주일에 4 - 5번 ⑥ 거의 매일

I. 다음은 귀하께서 여가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가활동을 하는 이유(동기)	전혀 아님	←	보통	→	매우 동의
1. 여가활동은 피곤한 일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여가활동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싶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여가활동은 기분전환을 위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여가활동은 생활에 활력소를 얻기 위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여가활동은 신체적 건강유지를 위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여가활동은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여가활동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여가활동은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여가활동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여가활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여가활동은 소속의식을 느끼고 싶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활동은 재미있게 잘 놀기 위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여가활동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여가활동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여가활동 참여에 ‘방해’가 되는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전혀 아님	←	보통	→	매우 동의
1. 소극적 성격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방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좋지 않은 건강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방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여가활동 하면서 내 몸이 다칠까봐 안전이 걱정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여가활동을 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여가활동을 하는데 기술이 부족하고 서툴다	①	②	③	④	⑤
6. 여가활동에 흥미와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여가활동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여가활동 할 때 함께 참여할 친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여가활동을 할 때 가족의 이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여가활동에 필요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활동을 할 때 혼잡하고 붐비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교통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	전혀 아님 ← 보통 → 매우 동의				
	①	②	③	④	⑤
1.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여가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여가활동을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연습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수업을 받기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같은 여가활동을 하는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여가활동 참여를 이해받기 위해 평소에 가족에게 충실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여가활동을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고 권유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여가활동 비용부담이 큰 경우 참여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쿠폰 등 각종 할인혜택을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여가 활동참여를 위해 돈을 따로 모아 두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에 대하여	전혀 아님 ← 보통 → 매우 동의				
	①	②	③	④	⑤
1. 현재 여가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여가활동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여가활동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주변에 여가활동 참여를 권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여가활동을 계속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여가 지속 의도’ 질문입니다.

65세 이후 여가활동을 계속할 의도가 있는가?	전혀 아님 ← 보통 → 매우 동의				
	①	②	③	④	⑤
1.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계속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위해 돈을 투자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4. 여가활동을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거주지역은? ①제주시 ②서귀포시
2. 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3. 연령의 연령은? 만 ()세
4. 배우자의 유무는? ①있다 ②없다
5. 귀하의 건강여부는?
 ①매우 건강 ②거의 건강 ③보통 ④거의 건강 못함 ⑤매우 건강 못함
6. 귀하의 교육수준은?
 ①초등 졸업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 졸업 ⑤대학 졸업 이상
7. 귀하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①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미만 ③200-300만원 미만
 ④300-400만원 미만 ⑤400만원 이상
8. 귀하의 직업은?
 ①자영업 ②공무원 ③회사원 ④전문자유직 ⑤주부 ⑥농수축산업자
 ⑦ 은퇴 ⑧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Testing Leisure Motivation and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Model for Pre-elder people

- Comparison between Physical and non-Physical Leisure Activities -

Bo-Sook Koh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t is undoubtedly true that we should engage in leisure activities by preparing and planning given leisure time at an old age to make an old-age life more leisurely and happily. Unlike the past, modern elder groups te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to enjoy their old-age lives while keeping their physical and spiritual health. However, it is not easy to start leisure activities at the time of old age, pre-elders should make efforts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before they get too old. Those who actively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at their pre-elder ages are highly likely to keep their leisure activities naturally even when they get old. Therefore, overall understanding on leisure activities in pre-elder age can provide predictive data for understanding their leisure activities in their elder age.

There are a wide range of leisure activities 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the categorization of leisure activities was also divided into various type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studies. Types of leisure activities by pre-elders may vary ranging from physical activities like sports to spare time activities such as Chinese calligraphy or drawing, suggesting other types of leisure activities

which are much more focused on psychological activities than physical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former can be defined as physical leisure activities while the latter can be characterized as non-physical leisure activities. Therefore, leisure activities in this study were categorized as physical and non-physical leisure activities. Taking a look at the process of turning leisure activity into leisure participation theoretically, the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ies is created through leisure motives which facilitate leisure activities. Even the motivation on participating leisure activities was made, however, each human has its own leisure constraint that prevents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motivation and leisure constraint act as counter-effective factors in leisure participation and internal leisure negotiation is bound to be made in between leisure motivation and leisure constraint.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identify how the internal leisure negotiation relates to other variables and the overall leisure activi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tructural relations of leisure motivation, leisure constraint,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leisure participation, and continued intention in old ages. Currently, the structural model on leisure motivation, leisure constraint, and leisure participation is still at exploring research level. In view of this, the study tries to identify structural model among variables and seeks confirmative model on the research of pre-elder people which once was theoretically researched by adding a variable called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Added to that, types of leisure activities were categorized as physical and non-physical leisure activities and identified the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types of leisure activitie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was set through reference study.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pre-elders in Jeju for 3 days starting from 1 April, 2010 for empirical analysis. After deleting and modifying questionnaire items that are not reliable and feasible, another survey was conducted from 5 to 13 April and a total of 362 data were

collected.

The study finding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s of leisure motivation: physical leisure activities showed strong 'emotional motivation' while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in non-physical leisure activities was represented by 'enjoyment motivation' as the strong factor. Also, leisure motiv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ing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on both physical leisure activities and non-physical leisure activities. It was also significantly and directly influencing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In case of leisure constraint, 'physical constraint factor' was strong factor in dynamic leisure activities while 'individual constraint factor' was strong factor in static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factor, it was found that 'time/technology negotiation factor' was significant factor in both dynamic leisure activities and static leisure activities

Leisure constraints were showing relative differences by types of leisure activities. In physical leisure activities, leisure constraint was not directly affecting on leisure participation but directly affecting on the leisure activity through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In case of non-physical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of leisure constraint was not made through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but it was directly influential in leisure participation. The findings of Son et al.(2008)'s study which identified structural relations on park visitors contrasts with the study findings which recognized leisure constraint,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and leisure participation independently while the finding of Choi(2009)'s research were structurally identical in that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acts as intermediary factor between leisure constraint and leisure participation .

The suitability of these structural relations was also identified as suitable in the expanded model which added consistent variables to identify the leisure intention on keeping current leisure activities through elder age.

At a time when ageing issues are becoming as social problems, the research

on leisure activities of pre-elder people will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n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attempted to categorize leisure activities into two groups (physical and non-physical) to identify how leisure motivation and leisure constraint interconnect and influence on leisure participation while previous studies were confined to specific leisure activities.

Studies on structural relationship of leisure motivation, leisure constraint,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and participation are still at a basic level.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further explored leisure sciences by applying leisure negotiation model into the overall leisure activities of pre-elders.

Hopefully further studies on this leisure activities are made to provide guidelines on addressing ageing issues by implementing its leisure-participating atmosphere that the aged society of Korea is not a serious social problem but a social phenomenon that can be naturally accepted and overcome.